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9호 HYUNBULNEWS.COM 2025년 7월 16일(음력 6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7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대통령과 종교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李정부-불교계 '국민 행복' 협치 다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李대통령, 7월 9일 취임 후 첫 종교지도자 오찬 회동
李 "포용적 세상을"…진우 스님 "국민 평안 위해 노력"
첫 예방 온 김민석 총리, 불교에 문화콘텐츠 협업 제안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을 본격화하며 종교계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특히 불교계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조언을 경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장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서 걱정"이라며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종교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그런 합리적인,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환영사를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나라의 안정된 토대를 마련해 온 만큼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를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놓는 큰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희망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인들도 대통령과 함께 국가, 국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평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 대표로 인사한 진우 스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보살피고 또 사랑과 자비로써 잘 보듬어서 좀 더 국민들을 평안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싶다"며 "지난 7개월 동안 국난에 가까운 시기를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성적으로 잘 갈무리를 해 준 것 같아 대단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7월 10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우 스님을 예방, 불교의 역할 두 가지를 요청했다. 첫 번째는 문화콘텐츠 협업으로 김 총리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핵심에는 불교문화의 숨결이 있다"면서 "사찰과 그 속에 담긴 문화콘텐츠는 우리 문화의 보고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호국불교의 가치를 살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복원 계승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불교계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템플스테이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최근 서울 진관사에서 사찰음식을 경험했다는 김 총리는 그동안 관심 가져온 발달장애인들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길 소망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1년에 8000명 정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 중이다. 더 발전시켜 살피겠다"고 약속하며 "불교역사가 1700년이 됐고, 정신적·문화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종교적인 형평성 문제로 오히려 규제받는 역차별 현상이 있다. 종교 차원이 아닌 우리 문화로 후손들에게 전승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8일에는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진우 스님이 김 위원장에게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는 드물다. 균형을 이루게 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며 "지방 발전의 토대가 될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덕담하자 김 위원장은 "지역 모두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화답했다.

日반출 고려사경·조선불화 광복 80주년 앞두고 환수

국가유산청 · 국외재단 7월 8일
시왕도 등 2점 언론 최초 공개
"불교미술사 연구에 중요 자료"

광복 80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2점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이하 국외재단)과 함께 7월 8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사경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조선 불화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 공개했다.

이날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공개하게 돼 뜻깊다"며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앞으로도 현지 협력망을 강화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고려 1334년에 제작된 불교 사경(寫經)으로, 감색 종이에 금니(금가루를 아교풀에 개어 만든 안료)로 필사했다. 13장의 종이를 이어 붙여 10m가 넘는 이 사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인 〈대방광불화엄경〉의 주본(중국 당나라때 실차난타가 한역한 80권본)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이다. 화엄경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기록돼 있다.

해당 고려 사경은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고, 올해 4월 협상을 거쳐 국내로 들여왔다.

배영일 마곡사 성보박물관장은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은 사경의 구성요소인 표지화·발원문·변상도·경문 등을 모두 갖췄다. 무엇보다 변상도는 능숙한 선묘(선으로 묘사함)에서 당시 전문 사경승의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시왕도'는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시왕을 그린 그림이다. 현전하는 조선 전기 완질 시왕도 2점 중 하나로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후 국가유산청과 협력으로 낙찰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가 이뤄졌다.

각 폭의 화기에는 제작 시기는 없으나, 스님과 시주자들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어 민간 발원으로 조성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박은경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시왕도'는 고려후기 불화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15세기 초 작품으로 추정된다"며 "한국 불교회화사 및 동아시아 시왕도 연구에 중요한 사례"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국가유산청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7월 8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사경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조선 불화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 공개했다.

불교로 읽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① 5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부터~
인도 보드가야
인도 마하보디 대탑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담불라 석굴 사원
스리랑카 시기리야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미륵도량
설두산+상해 4박5일
▶일 정 : 인천-상해-보타낙가산-설두산-상해-인천
▶동참금 : 문의
중국 4대불산
-구화산+항주 4박5일
-오대산+북경 4박5일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조계종연구소는 종단 심장부…미래 제시”

7월 9일 연구소 출범 기념 세미나
진우 스님, “불교 위기 속 디딤돌”
이명호 소장 “사회적 실천 함께”
보일 스님 “자비, AI 개발 반영”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조계종연구소가 7월 9일 개최한 ‘조계종연구소 출범 의미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조계종연구소가 조계종의 싱크탱크로서 우리 종단의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9일 서울 아미드호텔 2층에서 열린 조계종연구소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서 연구소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을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불교는 1700년 동안 우리나라 정신문명을 이끌어 왔지만 종교인구 감소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출가자 감소와 포교 전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부재를 꼽았다.

진우 스님은 “수행자가 없는 불교, 종단으로 막다른 곳까지 간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든다”면서 “전근대적인 출가 권장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종단과 불교를 잘 아는 싱크탱크가 모여 토론하고 대안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계종연구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본말사 3500여 개 사찰 유지관리와 신도 교육, 그리고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전하며 조계종연구소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것을 기대했다. “불전, 등값, 관람료만 가지고 살것인가”를 되물은 진우 스님은 재정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종단적으로 경제적인 수입 구조를 반드시 늘려야 포교, 전법, 교육, 사찰도 유지될 수 있다”면서 “정밀하게 접근해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조계종연구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연구소를 ‘종단의 심장부’라고 표현했다. 스님은 “연구소가 바람이나 꿈으로만 자리매김할 것이 아니고 일을 반드시 실천하고 현실화 해 우리 종단이 미래불교, 미래 종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연구소가 조금 더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비화 해 종단이 해나갈 일에 디딤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느 총무원장이 오던지 조계종연구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보장받고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초대 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발판을 잘 놓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계종연구소가 어떻게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하는지 종단 내외의 연구 전문가와 종단 주요 소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들은 세미나에서 조계종연구소가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실천 전략을 생산하는 ‘불교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은 ‘조계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에서 “조계종연구소는 불교의 지혜로 종단과 사회를 읽고 답을 제시하는 전략 싱크탱크라는 사회적 위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 내실화를 위해 △연구소의 제도적 위상 강화와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종단 구성원과 학계·시민사회와의 연결 확장 위한 개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교육-실천 연계 조직 문화 조성으로 종단 정책 실행력 제고를 강조했다.

이욱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은 ‘한국 불교의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종교 인구 감소 △인간과 자연 공존 △새로운 미디어 출현 △정치적 양극화와 우경화 시대 등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사회적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불교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AI개발과 활용을 위한 불교적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은 AI 윤리 선언 제안을 통해 인류 공동체를 향한 자비의 실천과 AI 기술 미래에 대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주체가 되길 기대했다.

보일 스님은 AI가 인류 문명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대, 종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교계는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와 지혜가 AI 개발과 활용의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4월 1일 조계종 총무원 삼원통합과 함께 출범한 조계종연구소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포교원 포교연구실, 교육원 불학연구소 등 종단의 연구소가 각기 해왔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명실상부 조계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고종 상진 스님, 후반기 집행부 인선

7월 3일 종무회의서 공표
신임 포교원장 능해 스님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임기 후반부 집행부 인선이 단행됐다.

상진 스님은 7월 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총무원장실에서 종무회의를 열고 임기 후반부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다.

2기 집행부는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이 포교원장으로, 행정부원장에 총무부장 도성 스님이 자리하며 종단 종무행정과 포교 종책을 강화했다. 기획실장 영범 스님은 재경부원장으로, 사회부장 도휘 스님은 사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법규위원장에는 육화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상진 스님은 종단 대변인에 성천 스님, 사회부장에 법연 스님을 새로 지명했으며 총무원장 특보단의 종책 실장에 철오 스님, 종책특보에 김명순, 문화사회특보에 인용민, 사회복지특보에 박창민을 각각 지명했다.

다만 포교원부원장, 사회복지원장, 기획실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전법사부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뒀다.

신중일 기자

안병구 밀양시장 종정 공로패

7월 10일, 사명대사 선양 치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7월 10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에서 안병구 밀양시장에게 종정 공로패를 수여했다.〈사진〉

안병구 밀양시장은 사명대사 선양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전념해 사명대사의 위상을 널리 알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밀양강 오딧세이’를 개최하고 유적지와 표충사 호국성지를 정비하는 데 크 공을 세웠기에 그 공을 치하하고자 종정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명대사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사명대사-칼을 품고 슬퍼하다’는 5월 23일 제67회 밀양아리랑축제에서 첫선을 보여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3000여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 바 있다.

진우 스님은 “호국정신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려야 한다”면서 “호국불교를 알리는 밀양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구 시장은 “올해 드라마 제작도 시작되니, 많은 기대를 해 달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출가학교 교구별 개설·포교사 제도 개선 논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월 10일, 직지사서 84차 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 고운사 주지)는 7월 10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84차 회의를 열고 종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가와 포교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출가학교는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개설을 유도, 본사의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충남권에선 수덕사, 전남권에선 송광사가 출가학교 개설을 준비 중이며, 점차 권역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포교부장 남전 스님은 “출가학교를 통해 출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출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본사와 협력해 운영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행 준비 중인 본사들을 모범 사례로 정착시키고, 프로그램을 가다듬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다문화시대에 맞는 출가 접근 필요성을 제시했고,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종단 차원의 통합형 출가학교 운영을 제안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출가학교는 출가자 배출은 물론 친불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장”이라며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포교사 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포교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도 오갔다. 일부 주지스님들은 포교사단이 사찰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갈등을 빚는 사례를 언급하며 포교사의 기본 자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남전 스님은 “현 포교사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포교사와 사찰이 함께할 수 있도록 포교사단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기념관 화재 복구 진행 상황,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파크골프 대회 추진·협력 계획,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전통다비작법보존회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천 직지사=김내영 기자

마곡사 주지 후보에 원경·제민·태진·혜룡 스님


원경 스님


제민 스님


태진 스님


혜룡 스님

7월 17일 산중총회 개최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에 선출하는 산중총회가 7월 17일 열리는 가운데 원경 스님과 제민 스님, 태진 스님, 혜룡 스님이 차기 주지에 도전장을 냈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자암 스님)는 7월 5~7일, 후보등록을 실시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주지후보는 경선으로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마곡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7월 17일 오후 1시 경내 관음전에서 진행되며, 이날 차기 주지후보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반려견 합동 천도재

반려견 전용 법당 신설

“불교적으로 동물과 인간은 형상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또한 “一切衆生 悉有佛性·일체중생 실유불성” 세상 모든 만물에 불성이 있다. 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 견주님 곁을 떠나버린 소중한 반려견의 다음 생을 위하여 양평 수불사는 반려견 전용 법당을 신설하여 반려견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반려견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주시면 반려견의 업식이 맑아지고 업장소멸이 되어, 육도 윤회하여 축생 또는 인간의 몸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 더 나은 삶을 살아 갈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견주님의 슬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어 항상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반려견 합동 천도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반려견 합동 천도재 꼭 하실 분
- 반려견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견주님
- 지난 날 반려견의 천도재를 못하신 견주님
- 반려견 유골을 간직하고 산골하지 못하신 견주님
- 반려견 극락왕생을 위하여 법당에 위패를 모실 견주님



접수기간
1차 : 2025년 07월 10일 ~ 08월 30일
2차 : 2025년 10월 01일 ~ 11월 10일

합동 천도재 일시
1차 : 2025년 09월 07일 (일) 오전 10시
2차 : 2025년 11월 16일 (일) 오전 10시

합동 천도재 동참비 10만원 (50명 한정)
입금계좌 농협 351-0866-6696-13 수 불 사
장 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약수사길 24-40 수 불 사
전화접수 ☎ 031)773-8387 / H.P 010-4461-3825

“만당 종사 종단 중흥 원력 잊지 않겠습니다”

취암당 만당 종사 영결 · 다비식 7월 7일 엄수

불갑사서 조계종 중앙종회장
사부대중 1000여 명 참석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영결법어
“책임감 갖춘 종단 큰 일꾼”
7월 10일 초재…백양사서 막재

임은호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광장 대표회장이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종단 발전에 헌신해 온 취암당(翠巖堂) 만당(滿堂) 종사가 사부대중의 울음을 뒤로 한 채 질푸른 불갑산의 배웅을 받으며 환지본처(還至本處)했다.

조계종 취암당 만당 종사 장의위원회(장의위원장 주경·무공 스님)는 7월 7일 영광 불갑사에서 ‘취암당 만당 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을 봉행했다.

연일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만당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각계 각층에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협소한 장소로 영결식장 입장이 쉽지 않자 추모객들은 스님의 법구가 다비장으로 이운되는 길가에서 삼배를 올리며 스님과 눈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명종 5타로 시작된 영결식은 삼귀의와 영결법요, 헌향·헌다, 행장소개, 추도입정, 영결사, 법어, 추도사, 조사, 조가, 인사말씀, 사홍서원, 발인 등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결법어에서 갑작스러운 입적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진우 스님은 만당 스님을 “마라난타 존자의 원력과 각진 국사의 수행력 및 교화력을 다시 호남 땅 불갑산에 현현(顯現)케 하고자 금세기 환생한 이”라고 표했다. 그러면서 “육십갑자를 용맹정진하다가 붉은 꽃무릇이 찰나에 스러지는 것처럼 어느 여름날 새벽 홀연히 서방정토를 향해 날아갔다”면서 “부지런한 발자국은 영광 땅 법성포구의 불갑사 흙길 위에 고요한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환한 미소는 장성 백양사에서 고불매처럼 조용하게 주변을 향기로 물들일 것이고, 우렁찬 목소리는 서울 종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것”이라고 추모했다.

스님은 “불교계 중요한 과제들이 사회와 만나는 접점마다 항상 손과 발이 먼저 움직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이라면 먼저 찾아서 얼개를 짰다”면서 “강직함 속에는 예민한 책임감이 있었고 그 책임감은 종단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광장 대표회장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매진한 취암당 만당 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7월 7일 영광 불갑사에서 중앙종회장으로 엄수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영결사에서 만당 스님의 업적을 돌이켜 보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등 소임이 주어질 때 종단과 교단을 위한 역할을 다했고 한국불교문화의 세계화에 한 획을 그어 한걸음 나아가도록 이끌었다”면서 “스님의 생애는 오직 수행과 발원, 그리고 회향이었고 마치 팔만사천 경전 속의 보살행과 다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명을 벗고 고요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라”면서 “스님의 삶과 원력,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추도사에서 “천진한 얼굴에 호쾌한 웃음소리 온 산을 울리고 동그란 눈매에 따뜻한 가슴은 얼음을 녹인다”면서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나, 기약할 수 없음을 슬퍼한다”고 스님을 향한 그리움을 표했다.



만당 스님의 법구를 연화대 다비장으로 이운하는 모습.

속리산 도반 정덕 스님은 “당신은 영원한 화엄회 회장”이라며 “속환사바(速還娑婆)해 다시 한 번 광도중생생(廣度衆生) 하라”고 염원했다.

마지막까지 스님과 함께 근무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원을 대표해 사무국장 본연 스님은 “함께 있지 않아도 스님의 정신은 함께할 것이기에, 결코 슬픔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님께서 주고 가신 서릿발 같은 사명을 받들어 스님을 떠나 보내는 슬픈 마음을 흐르는 눈물에 담아 떠나보내고 푸르른 바위 같은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스님이 걸어간 뜻과 서원을 따라 중단없이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불갑사를 장엄한 대가람으로 중창해 전국이 사랑하는 성지로 일궜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으로 더 많은 중생들이 불연을 맺게 해 한국불교가 대중과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닦으셨다”면서 “전라남도는 스님이 일군 불교문화의 성지를 더욱 장엄하게 가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자비와 화합의 정신, 문화와 전통의 뜻이 영광의 마을과 산사 곳곳에 살아 숨쉬게 하겠다”면서 “스님의 깊은 뜻과 수행의 길을 가슴에 새기며 고통없는 부처님 세계에서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황망한 마음을 전하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서며 불교문화 계승에 평생을 바친 스님의 열정과 통찰, 그리고 항상 온화한 웃음으로 대중을 바라봐 주신 자비 가득한 불심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수 불갑사 신도회장은 “스님의 원적으로 스님이 떠나신 그 공간을 채울 길이 없겠지만 우리 모두 스님의 가르침과 불교발전을 위한 노력을 잊지 않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 박성기 마라난타불교대학 동문회장 등도 조사를 전하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불갑사·관음사 합창단의 조가에 이어 문도대표 진각 스님은 조의를 표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문도들이 화합해 남은 일들을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결식 후 만당 스님의 법구가 연화대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운구행렬은 불갑사 경내를 돌며 작별을 고했고 부처님께 세간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문도와 장의위원, 스님, 신도들이 만장과 함께 법구를 따랐다.

스님의 법구와 만장 행렬이 연화대에 도착하고 이어 다비식이 엄수됐다. 사부대중의 “나무아미타불” 염불성이 메아리가 돼 불갑산에 울렸다. 염불소리가 연화대에 가득 차는 순간 “불, 법, 승” 외침과 함께 만당 스님의 법구는 솟아오르는 불꽃과 연기 따라 서서히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만당 스님의 49재는 7월 10일 영광 불갑사에서 초재를 시작으로 △2재 7월 17일 불갑사 △3재 7월 24일 불갑사 △4재 7월 31일 불갑사 △5재 8월 7일 서울 조계사 △6재 8월 14일 불갑사에서 진행된다. 막재는 8월 21일 제18교구본사 백양사에서 봉행된다.

진우 스님 깊은 애도…“무상도 원망스럽다”

오랜 인연 떠나보내며
칠언절구 찬으로 추모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어도 원망한 적 없었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모든 일이 이루어졌네. 이제 한 몸을 놓아버리고 서방정토로 떠났지만, 본래의 서원 잊지마시고 사바세계로 돌아오소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7일 영광 불갑사에서 봉행된 만당 종사 영결식에서 칠언절구의 찬(讚)을 읽어 내려가며 먼저 떠나간 만당 스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2024년 9월 4일 진우 스님이 만당 스님을 조직개편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대화하는 모습.

이날 진우 스님의 한 마디 한 마디에는 깊은 신뢰로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도반에 대한 애틋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만당 스님은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을 수행하는 내내 중앙종회의 원이자 조직개편 특별보좌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등을 역임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해왔기에 허망함이 더 컸다.

영결법어 도중 젖어드는 눈시울을 숨기지 못한 진우 스님은 “산승에게는 믿고 의논할 수 있는 상대였고,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그런 존재였다”면서 “이제 함께 차를 마시면서 같이 가야 할 방향을 도모할 수도 없고 갑자기 걸려 온 전화 속에서 울리는 큰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만당 스님 입적 당일인 7월 4일, 불갑사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방명록에 ‘무상(無常)도 원망스럽구나, 잠깐 쉬었다 오시오’라고 적으며 깊은 애도를 남긴 바 있다. 조문을 마친 후에는 “제행이 무상이라고 했지만 그 무상도 원망스러운 심정”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너무 황망해서 말을 잊어버릴 정도다. 잠깐 쉬었다 다시 와서 광도중생하기를 축원한다”고 추모하며 마지막 기도를 올려 먹먹함을 더했다.

임은호 기자

문화사업단 “스님 사랑과 가르침 기억”

7월 4일, 직원 애도문 발표
“서방정토에 왕생하시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원들이 단장 만당 스님의 원적에 깊은 슬픔과 아쉬움을 전했다.

직원들은 7월 4일 발표한 애도문에서 “스님은 조계종 내 다양한 행정 및 입법 소임을 두루 거쳤고, 2024년 2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임명돼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해 불교문화 발전과 대중화에 헌신하시며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셨다”면서 “스님의 삶은 한여름 태양처럼 매 순간 열정과 실천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불교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 준 스님의 열정과 사랑, 가르침을 기억하며 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길 온 마음 모은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 진행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라오스 성지순례 모습.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임은호 기자

2025 청소년 마음등불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빛나는 나를 위해, 내 삶의 주인공인 나를 위해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 10월

목적 청소년들에게 명상, 심리, 상담,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을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청소년기의 몸과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소통과 공감, 배려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조화롭고 균형있는 관계를 가꿔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대상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사)동련 · 탄허기념불교박물관 ·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 봉인사 · (사)자비명상 · 자비선사 · 관음선원 · 통담선원 · 미타선원 · 마인드힐링 명상상담센터 · 봉불사 · 정토사 · 온새미로붓다 · 보현정사 · (사)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 · 전등사 · (사)싱잉볼 치유의 소리 · 청련사(18곳 무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 진행일정

	프로그램명	일정	지역	사찰·단체	연락처
1	청소년을 위한 상담이 있는 명상 ‘행복한 마음정원 꾸미기’	5월 30일(금)	서울	봉인사	010-2570-5585
2		9월 28일(일)	남양주		
3	화엄의 빛, 마음의 꽃	7월 28일~29일(월화)	강화	청련사	010-4938-5289
4	청소년을 위한 상담이 있는 명상 ‘마음과 소통해요’	7월 15일(화)	포천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010-2563-3917
5		9월 8일(월)	포천		
6		9월 13일(토)	홍성		
7		9월 20일(토)	대구		
8		10월 18일(토)	서울		
9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	8월 24일(일)	부천	마인드힐링 명상상담센터	010-5555-7103
10	마음 톡(TALK) 명상 명상아 놀자!	7월 25일(금)	부산	미타선원	010-3852-7118
11	나를 찾는 선 ‘마음이 행복한 나를 찾아봐’	7월 20일(일)	포항	(사)동련	010-5332-0853
12		7월 26일~27일(토일)	경주		
13		8월 10일(일)	부산		
14		9월 20일(토)	창원		
15	EGG 깨뜨림, 잠자는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	7월 19일(토)	대전	(사)자비명상	010-5300-8085
16		8월 1일(금)	서울		010-9867-4221
17	청소년 행복찾기 차명상 ‘자비다선’	7월 19일~20일(토일)	성주	자비선사	010-9437-3911
18		8월 2일~3일(토일)	성주		
19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7월 19일(토)	서울	탄허기념불교박물관	02-445-8486
20	통(느낌)! 통(마음)! 청소년 행복 명상캠프	7월 19일(토)	무안	봉불사	061-454-2303
21	청소년 행복찾기 선과 명상	7월 27일(일)	세종	보현정사	010-7228-4191
22	존귀한 나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마음 여행	7월 26일~27일(토일)	서울	관음선원	010-5327-8146
23		8월 17일(일)	서울		
24	‘맑고 향기롭게’ 청소년 캠프	7월 28일~29일(월화)	강화	전등사	010-7277-1311
25	소리와 함께하는 청소년 명상 프로젝트	8월 15일~16일(금토)	부산	(사)싱잉볼 치유의 소리	010-8643-6974
26	신통방통 육방통	8월 8일~9일(금토)	서울	통담선원	010-5013-4134
27		8월 23일~24일(토일)	서울		
28	청소년 마인드케어 명상힐링캠프	8월 17일(일)	울산	정토사	010-6337-9211
29	나를 개발하는 선 ‘득템명상’	5월 17일-18일(토일)	의정부	온새미로붓다	010-9414-9331
30	나의 감정조율 레시피	9월 2일(화)~10월 28일(화)	서울	(사)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	010-2757-6463

※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브컬처’로 불교 전법 확장될 수 있을까

서브컬처 정점 ‘버튜버’ 佛法 스님 데뷔가 남긴 것들

불법 스님 첫 방송 ‘인기폭발’
실존 않는 인물에 대중 열광
그들에겐 주목할 서사들 담겨

‘서브컬처 팬덤’, 버튜버 강점
팬덤층 ‘화력 · 덕력’에 주목을
“시대 맞는 포교로 인식해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악역 ‘사자 보이즈’ 천도재 모습. 스님 버튜버 ‘불법 스님’이 네이버 플랫폼 ‘치지직’에서 방송을 통해 봉행했다. 시청자 댓글창의 반응이 뜨겁다.
사진=불법 스님 라이브 방송 캡처

낯섦과 놀라움. 7월 9일 네이버가 운영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치지직’에서 파일럿 방송으로 데뷔한 스님 버츄얼 유튜버(이하 버튜버) ‘불법 스님’을 접한 뒤 적지 않을 불자들이 느꼈을 반응일 것이다.

조계종 승적을 가진 ‘진짜’ 스님이 버튜버 ‘불법 스님’으로 가상공간인 ‘치직산 의문사(疑問寺)’에서 진행한 첫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악역 ‘사자 보이즈’ 멤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봉행됐다.

방송 전부터 엑스(구 트위터)에 알려지면서 불법 스님의 채널 팔로우는 5000여 명에 달했고, 방송 뒤에는 그 수가 1만명까지 늘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에서는 최대 4200여 명이 동시접속해 시청했으며, 마지막까지도 3000여 명을 유지했다.

서브컬처 산업의 정점 ‘버튜버’

가상의 스님이 가상 도량에서 연 천도법회에 4000명의 사람들이 몰려가 열광하는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서브컬처(Subculture)’와 그 안에서 파생된 산업인 ‘버튜버’를 알아야 한다.

서브컬처는 주류 문화와 구별되는 소집단의 독자적 문화양식을 말하며, 애니메이션·게임·버튜버·코스튬 플레이(코스프레)·밈(meme) 문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1990~2010년대 서브컬처가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좋아하는 ‘오타쿠 문화’ 정도로 인식되던 것과는 달리, 현재 디지털 세대에게 서브컬처는 ‘공감 기반의 놀이문화’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중 ‘버튜버’는 최근 가장 뜨겁고 새로운 서브컬처 산업의 정점으로 부상 중이다. 2016년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버튜버라는 개념을 대중화한 인물은 ‘키즈나 아이’로, 그녀는 3D모션 캡쳐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 버튜버’로 활동했다. 데뷔 1년 만에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일본관광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만큼 인기를 얻자, 전문 기획사들이 생겨났고 빠르게 산업화됐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버튜버는 스트리밍 시장의 판도를 바꿨고, 관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버튜버는 개인 방송인에서 지적재산권(IP) 콘텐츠를 가진 캐릭터가 됐다.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팬덤’이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형성되는 팬덤은 굿즈와 협업 상품 등 부가 산업의 소비로 이어진다. 최근 한국에서도 ‘플레이브’, ‘이세계아이돌’ 같은 버튜버 아이돌이 활약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서브컬처 팬덤을 불교로

스님 버튜버 불법 스님의 출현은 전법 영역을 서브컬처로 확장할 수 있음을 가늠하는 도전이자 실험이다. 실제 불법 스님이 보여준 ‘사자보이즈 천도재’는 전통 불교의식을 현대적 콘텐츠로 재해석해 서브컬처 팬덤에게 소개한 사례다. 버튜버는 매체일 뿐이며, 그 안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불법(佛法)’임을 알린 것이기도 하다.

서브컬처 팬덤들은 실존하지 않는 존재인 버튜버에게 위로받고 힐링하며 함께 울고 웃는다. 버튜버는 이들에게 모니터 속 가상의 인물이 아닌 감정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도반이며, 연결된 세상이다. 이 같은 서브컬처 팬덤은 ‘화력’과 ‘덕력’으로 대변되는 응집력과 콘텐츠 몰입도가 강한 만큼 이들의 불교 유입은 내부 결속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장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새길 때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변상도를 그려 내용을 전했다. 오늘날의 서브컬처는 이와 같은 개념일 것”이라며 “오래전 스님들이 탱화를 그리고 경판을 새겼듯, 현대의 스님 버튜버는 불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낮아진 장벽으로 불교를 만난 사람들이 수행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이는 좋은 방편”이라고 평가했다.

“올 여름 봉녕사서 ‘나’ 만나는 수행을”

7월 26일~8월 2일 ‘여성출가학교’
7월 23일까지 신청…20명 모집
8월 16~17일 ‘팔관재계 수계법회’

계·정·혜 삼학의 수행가풍을 이어온 수도권 대표 비구니 교육도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나’를 찾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여름 휴가 기간인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4기 여성출가학교’다. 봉녕사에 머물며 전통 승가의 수행과 삶을 직접 체험하고, 출가 수행의 가치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봉녕사 여성출가학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첫’ 출가학교로, 출가자 감소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4기의 주제는 ‘소리로 참나를 만나는 선명상’이다. 고불식, 삼귀의·오계 수지를 시작으로 발우공양, 조석예불, 사시불공, 운력, 실참수행, 수행점검 등 비구니 승가의 생활 전반은 물론 붓다볼(싱잉볼)을 활용한 선명상 체험으로 소리를 듣고 있는 ‘나’를 자각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또 부처님 생애와 계율, 기초 교리 등을 배우는 교리수업과 자비수참, 일보일배 등 신심을 북돋을 수 있는 수행도 체험한다.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특강도 포함돼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삭발식도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공동생활이 가능한 17~60세 여성 20명이며, 참가비는 40만원이다. 7월 23일까지 봉녕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룻낮 하룻밤 출가수행으로 ‘참된 나’를 만나 해탈의 인연을 맺는 뜻깊은 수행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8월 16~17일, 봉녕사에서는 8가지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하루를 보내는 ‘제2회 팔관재계 수행법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팔관재계 수계, 선명상, 우바새계경 독송, 대적광전 조석예불, 생명의 소리 108배, 공덕행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만족을 알고 베풀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며 △지혜로 바른 마음을 지키고 △장신구와 화장을 삼가며 △노래·춤·사치스러운 자리를 멀리하고 △오후 불식을 실천하는 등 팔관재계를 따르게 된다.

봉녕사는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정기 법회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앞선 5월 제1회 법회는 봉녕사 관음회원과 신도회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됐지만, 제2회 법회부터는 오계를 수지한 재가불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참가 대상은 오계를 수지한 우바새(남) 20명, 우바이(여)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오계를 수지하지 않은 사람은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봉녕사 오계수계식에 참여 후 동참 가능하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개인 침구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봉녕사 종무소(031-242-5412)로 하면된다.

봉녕사는 “하룻낮 하룻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헐떡이는 마음을 쉬고 청정하고 간소한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의 방향과 습관, 삶의 질까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반복되는 SPC삼립 사망사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사노위, 7월 5일 SPC 앞서 49재
허영인 회장 · 경영진 퇴진 촉구도
“기억 추모해야 현장도 바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7월 5일 서울 SPC본사 앞에서 ‘SPC삼립 산재 사망사고 49재 추도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49재는 조계종 사회노동위,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의 3대 종교계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날 추도재에 함께한 이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세상을 염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또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며 3년 사이 3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만든 SPC그룹 허영인 회장 및 경영진의 법적 책임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기도와 발언 후 동참자들은 고인의 위패를 들고 SPC본사 건물을 한 바퀴 돌았다. 정문 앞에 모두 모인 동참자들은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열창 한 후 위패를 소지하며 추모재를 마무리했다.

임은호 기자

25돌 민추본 “현재 고민 속 미래 준비”

7월 10일, 전법회관서 기념특강 및 집담회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가 기념 특강 및 집담회를 개최하고 남북 교류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추본은 7월 10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 회의실에서 ‘민추본 창립 25주년 기념 특강 및 집담회’를 진행했다. 민추본 90차 월례강좌이기도 한 이번 자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남북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혜안을 모으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불교교류의 방향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은 ‘혼돈의 국제정서 속 동북아 평화협력 및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에는 김진환 서울대 연구원의 사회로 집담회가 진행됐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활동 범위가 위축됐으나 한계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실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종단을 대표하는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활동 기구로서 자부심을 갖고 정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2025년 동호불교 7월 백중 물품 행사 품목

물품 소진시 마감 됩니다 ※ 택배비도 포함된 가격이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조상옷
- 쟈가드 100벌 이상 270,000원
- 천연펄프 100벌 이상 260,000원
- 추가옵션 (100개이상)
- 버선 300원
- 양말 350원
-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 속옷 세트 100개 이상 130,000원
-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20,000원
-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 돈그림 짚신 100족 1BOX 210,000원 (1세트 3족)

종이지옷(봉투)
- 지옷 200개 1BOX 150,000원
- 수자 200개 1BOX 130,000원
- 동자선녀 200개 1BOX 150,000원

수입양초
- 밀대 50개 60,000원
- 원백 20개 70,000원
- 돈타래 40개 70,000원

수입홀초
- 원백 20개 75,000원
- 돈타래 40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수입
- 7일초 20개 60,000원
- 5일초 24개 60,000원
- 3일초 40개 65,000원
- 1일초 90개 95,000원
- 15일초 12개 90,000원
- 30일초 4개 150,000원

국산초
- 밀대 50개 60,000원
- 원백 20개 70,000원
- 돈타래 40개 70,000원

국산홀초
- 원백 20개 75,000원
- 등신불 25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최상급 -국산(흰색)
- 7일초 20개 90,000원
- 5일초 24개 95,000원
- 3일초 40개 95,000원

파라핀 1BOX(1.8L/12개) 65,000원

백중 행사 용품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달력 7월 2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혜택 받아가세요’
- 오색종이 100개 50,000원
- 삼베 50개 100,000원
- 삼베옷 (모자포함) 20개 120,000원
- 군웅 50개 100,000원
- 소창 50개 100,000원
- 길배-대 10개 150,000원
- 영가만원등 100개 230,000원
- 오색길배 (천왕길배) 30개 135,000원
- 비석위패 (향나무) 100개 270,000원

백중행사 기도 접수 받습니다-실사 25,000원(90X45)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 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7치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12000원)※

보시용품 대량 구매 준비끝!!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예금주 :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401-1



▲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자 보이스. 사진=NETFLIX 캡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최근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부문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극 중 아이돌이 부른 노래들이 글로벌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악귀들로부터 인간 세계를 지키는 걸그룹 '헌트릭스'와 악귀 세계에서 탄생한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의 대결을 그린 이 영화를 김용덕 한국민화센터 이사가 불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했다. 김용덕 이사는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사전〉과 〈나는 신이로소이다〉의 저자로 현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강사다.

편집자 주

'사자 보이즈' 원형은 불교 '명부사자'

불교로 읽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① 아이돌이 된 명부사자(冥府使者)

② 성보 속 더피(호랑이)와 수지(까치)

명부사자='지옥의 공무원'
죄업 판단하는 '사천왕'에
효도 등 감시해 보고 역할

망자 끌고 가는 두려움 대상
불교미술 속엔 귀엽게 묘사
사모 쓰고 명부 손 꼭 쥐어

명부 대신 '저승'으로 변화
사모 쓴 창백한 얼굴 표현
근대 대중매체에 자리잡아



◀ 호랑이를 탄 검은 복장의 꼭두, 근대. 사진=국립민속박물관

얼마 전 공개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아이돌과 K-팝 등 전형적인 한류 문화를 다루고 있지만, 전통문화 요소 또한 짙게 깔려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사자 보이즈'다. 주인공인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와 대결 구도를 벌이는 사자 보이즈는 잘생긴 외모와 오컬트한 매력을 지닌 5인조 보이그룹으로 헌트릭스만큼이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검은 도포와 갓, 창백한 얼굴까지.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바로 사자 보이즈가 저승사자를 모티프로 탄생한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그룹명 또한 '사자(Saja, 使者)'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 도포와 갓'의 저승사자 이미지가 만들어진 건 최근이다.

그렇다면 원조는 누구일까? 그 주인공은 불교의 '명부사자(冥府使者)'다. 직부사자(直府使者)·감재사자(監齋使者)·사직사자(四直使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명부사자는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승의 소식을 저승에 보고하거나 행정 서류 업무까지 처리하는 '지옥의 공무원' 같은 존재다.

이승과 저승의 메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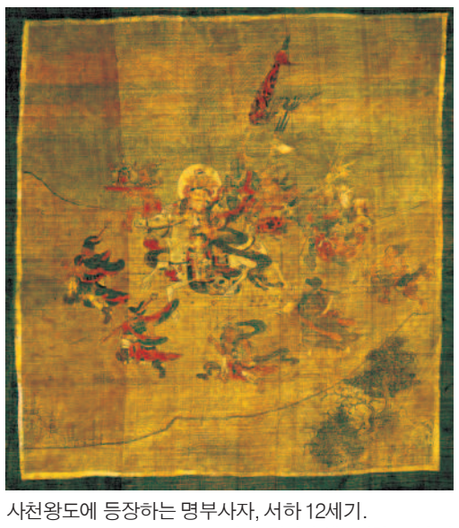
명부사자의 뿌리는 고대 중국 도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포박자(抱朴子)〉 등 도교 경전에는 '삼시신(三尸神)'이라는 정령이 등장하는데 인간 몸속에 살면서 그 죄를 보고하고 수명을 빼앗는 역할로 나온다. 불교에서 명부사자가 보고한 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개념과 흡사해, 삼시가 명부사자의 시원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삼시는 불교에 편입되어 명부사자가 된다. 하지만 당시 불교는 시왕(十王)의 개념이 정립되기 전이었기에, 사람의 죄업을 판단하는 역할은 '사천왕(四天王)'이 담당했다. 〈대루탄경(大樓炭經)〉과 〈기세인본경(起世人本經)〉 등 초기 불교 경전에는 사천왕이 명부사자에게 인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지, 스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라는 명을 내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곧 명부사자가 사천왕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 당나라 시기에 이르면 불교 시왕이 정립되고, 명부사자는 자연스레 시왕의 권속으로 역할이 바뀐다. 불교문화 속 지옥에는 시왕이 망자의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며 명부사자와 동자, 판관 등을 두고 있다. 명부의 조직체계가 갖추어지면서 명부사자는 망자를 인도하는 동시에 그의 죄를 적은 문서를 전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교문화 속 명부사자의 이미지

여러 경전에서 명부사자는 망자를 끌고 가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대보적경(大寶積經)〉에는 밧줄로 망자를 결박하는 명부사자를 강도에 비유하고 있으며, 〈불본행경(佛本行經)〉에는 붉게 타오르는 눈이 지옥의 '옥졸(獄卒)'과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명부사자를 맞닥뜨렸다는 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기록에 등장하는 명부사자는 죽음의 두려움이 반영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사천왕도에 등장하는 명부사자, 서하 12세기. 사진=러시아 에르미타주미술관

그렇다면 명부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미술로 표현되는 명부사자는 경전 내용처럼 끔찍한 이미지도, 우리가 인식하는 창백한 피부도 아니다. 불교미술 속 명부사자는 토끼 귀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사모(紗帽)'를 쓰고 알록달록한 갑옷 차림에 망토를 두르고 있다. 또 명부사자는 무기를 비롯한 여러 물건을 쥐고 있는데, 용머리 장식 도끼인 '월부(鉞斧)'와 종이를 돌돌 만 '두루마리'가 유독 많은 편이다. 두루마리에는 직인이 찍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분명 중요한 문서로 짐작된다.

두루마리의 정체는 바로 '명부(名簿)', 즉 망자의 목록이다. 명부에는 망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주소, 가족관계 등의 신상정보부터 살면서 지은 선행과 악업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명부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명부이기에 말을 타거나 죄인을 심문하는 중에도 명부를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형 저승사자의 탄생

불교문화 속 명부사자는 민간신앙으로 스며든다. 죽음과 관련된 여러 설화를 살펴보면 명부사자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시간이 지나며 명부 대신 '이승'과 반대되는 '저승'이란 단어로 교체되어 '저승사자' 또는 '저승차사'라는 이름을 지니게 된다. 명부사자의 이미지도 바뀌게 되는데, 바로 검은 도포와 갓, 창백한 피부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저승사자는 언제쯤 현재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 이미지는 1970~80년대 납량특집 드라마로 방영된 '전설의 고향'부터 시작됐다. 당시 '전설의 고향' 연출을 담당한 PD가 한국형 저승사자를 만들기 위해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관복에 사모, 주검에서 볼 수 있는 창백한 얼굴빛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이 같은 저승사자 이미지는 이후 상여를 장식하는 꼭두와 무신도 등 여러 근대 민속자료에도 반영됐고, 대중매체 속에도 자리 잡게 됐다.

시대 따라 모습 바뀌는 명부사자

'전설의 고향' 제작자가 불교문화 속 명부사자의 존재를 몰랐던 사실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대중매체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스타일의 저승사자가 오늘날 문화콘텐츠에서 다채롭게 변주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도교 삼시신에서 불교의 명부사자, 대중매체 속 저승사자까지. 시대에 따라 모습을 바꿔 우리 곁에 존재하는 명부사자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닌, 죽은 영혼이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해 주는 메신저 같은 고마운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귀여운 호랑이와 까치 그리고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무기에 담긴 벽사(辟邪)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성 옥천사 오도전륜대왕도의 명부사자. (그림 왼쪽) 조선 1774년. 사진=옥천사성보박물관



명부사자도, 조선 18세기. 사진=국립중앙박물관





부산 장안사 응진전 명부사자상, 조선 1684년. 사진=필자 제공



김용덕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강사, 한국민화센터 이사

마음굴림, 본래의 지혜를 깨우는 시간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 8월 7일 개막

부산 벡스코서, 10일까지 375개 부스 참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마음굴림' 체험 운영
현대불교신문, 디지털 전법 콘텐츠 부스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마음굴림이란 모든 것을 근본 마음자리(참나)로 되돌려서 본래의 지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은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해 체험형 부스 '마음굴림'을 운영한다.

'마음굴림'은 불교의 지혜를 어렵지 않게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구성된 공간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가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시민들이 자신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지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스에서는 '근본, 몸, 감정, 관계'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미지 법문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참가자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을 선택한 뒤, 그와 관련된 삶의 고민을 상담자와 나누며 마음을 정리하고 방향을 찾는 소규모 대화의 시간이 제공된다.

체험은 총 3개의 방에서 4인 이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상담은 2개의 공간에서 2인 이하로 운영돼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깊이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지혜 카드와 시각 이미지 중심의 직관적인 구성은 초심자도 쉽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혜벽 스님은 "누구나 자기 안에 본래의 밝은 지혜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에 맡기고 굴려보는 체험이 되길 바란다"며 "불교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며, 삶 속에서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스에서는 SNS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마음굴림 그림책, 마음굴림 컬러링북, 라벤더 향주머니, 굴림 파우치 등 정성껏 제작한 굿즈가 제공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해 체험형 부스 '마음굴림'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체험 부스.

'마음굴림' 부스 관련 문의는 전화(051-403-7077)나 인스타그램(@maumgullim)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현대불교신문은 언론불사와 생활불교 콘텐츠를 소개하는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교언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구독 후원 법보시' 캠페인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런칭 홍보, 유튜브 콘텐츠 '사찰복덕방'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전법 콘텐츠를 알릴 예정이다.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을 주제로 8월 7~10일까지 열린다. 지난해보다 약 2배 규모로 확대된 이번 박람회에는 총 375개 부스가 참여해 명상 문화전, 명상 예술전, 사찰음식전, 선명상 체험존, 불교미술 전시, 무대 강연과 마음챙김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전통 사찰과 해양 휴양지를 연결한 복합 힐링 플랫폼을 제안하며, 불심의 도시 부산이 '국제 명상 웰니스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서 큰 호응을 얻은 팔정도 카드 체험 '히든 담마 챌린지'도 이어진다.

7월 25일까지 공식 누리집(www.busanbexpo.kr)에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조선 불교출판의 혼, 통도사서 펼치다

통도사성보박물관 특별전 '불서 개판'

7월 12일 개막, 9월 6일까지
울산 운흥사 경판 등 110여 점

조선 후기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의 전통과 정신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진응 스님)은 7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2025년 특별전 '불서 개판(佛書 開板): 새기고 펴내다'를 개최한다. 전시는 통도사성보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개막행사는 7월 12일 오후 2시 괘불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전국의 사찰들이 불서를 간행한 배경과 그 의미를 조명하고, 그 대표 사례로 17~18세기 활발한 간행 활동을 펼친 울산 운흥사에 주목한다. 운흥사에서 새긴 목판 50여 점과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 불서 관련 자료 60여 점 등 총 11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조선 후기 불서 간행은 스님과 신도의 교육, 신앙 실천, 의례 수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불서를 새기고 펴내는 일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동체적 수행의 표현이다.




운흥사 〈묘법연화경〉 목판.
사진 제공=통도사성보박물관

진응 스님은 "불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펼치며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자 했던 수행자들의 마음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이번 전시가 그 정신을 오늘의 우리에게 되새겨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382-100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핵 없는 한반도, 기억과 실천으로 걷는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생명존중 평화순례'

7월 19~25일, 6대 종단 부산서 합천까지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 스님)는 '해방 80년, 피폭 80년'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생명존중 평화순례'를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순례는 과거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라는 고통을 겪은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고통이 오늘날까지도 2세대, 3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순례단은 부산시청을 출발해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까지 걷게 되며, 불교·성공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 등 6대 종단이 함께할 예정이다.

대표회장 정산 스님은 "무더운 날



잠시 걷는 일도 벅찬데,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온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핵의 위협 속에서 여전히 전쟁과 불안이 반복되는 지금, 기억과 실천의 걸음이 절실하다"고 순례 취지를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무장애 관광' 위한 따뜻한 나눔

부산장애인복지관·해운대센트럴호텔 공동 주최

7월 4일 제1회 사회공헌 바자회 'WITHUS' 성료

사회복지법인 내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과 해운대센트럴호텔(대표 이종근)은 7월 4~5일 해운대센트럴호텔에서 제1회 사회공헌 바자회 'WITHUS 바자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바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장에는 물품 판매 부스와 먹거리 부스, 미니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마련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바자회는 플로라재단, EDP부산연제점, 제이와이코리아, 사바이사바이, 한울림라이온스코리아, 디자인



제로 등 지역 기업과 단체들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졌다. 여기에 부산관광공사 임직원들도 행사에 힘을 보탰다.

이승희 관장은 "바자회 수익금은 부산 지역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광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월정사-우든피시, 글로벌 명상수행 개최

전 세계 25개국 청년들 참여
7월 28일까지 오대산 일원서

강원도 오대산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평화의 서원을 세우는 특별한 수행 프로그램이 열린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미국 비영리단체 우든피시재단(Woodenfish Foundation, 이사장 이파 스님)과 7월 3일 '2025 월정사-우든피시 글로벌 명상수행 프로그램'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사)문수청소년회(이사장 해공 스님)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25개국에서 모인 청년 8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전통 불교의 출가 의례인 삭발식을 통해 마음의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시대적 사명으로서의 평화 실



천을 서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디지털 대전환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묻고 그 답을 평화에서 찾으려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 프로그램이 세계 곳곳에서 청년 리더십으로 이어져,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글로벌 명상수행 프로그램은 7월 28일까지 월정사와 오대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법흥 대종사, 무상·무아 실천한 선지식”

7월 5일 법흥 스님 영결 · 다비식
송광사서 조계총림장으로 엄수
현묵 스님 “지혜종자로 다시 뵙길”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총림 송광사 동당 도연당 법흥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7월 5일 순천 송광사에 조계총림 장으로 엄수됐다.

조계총림 송광사 동당 도연당(度然堂) 법흥(法興) 대종사의 영결·다비식이 7월 5일 순천 송광사 승보전 앞마당에서 총림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평생을 참선과 후학 양성에 헌신하며 청정 가풍을 실천해 온 법흥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기 위해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을 비롯한 총림 대중 스님들과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보선 대종사, 부의장 도후 대종사, 원로의원 원각·법등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암도·밀운 대종사,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 유나 영선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화엄사 전 주지 덕문 스님, 중앙종회의원 일화·시공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과 이경연 송광사 신도회장을 포함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영결식은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삼귀의례, 영결법요, 헌향·헌다, 행장 소개, 영결사, 법어, 추도사, 조사, 헌화 등의 순서로 봉행됐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수석부의장 보선 스님이 대독한 영결사에서 “대종사께서는 생멸을 넘은 자리에 계셨지만 인연 따라 헤어짐의 감회는 피할 수 없다. 거추장스런 환신을 벗고 해탈의 세계로 가셨으나 그 빈자리는 너무나 크다”면서 “스님께서는 자신과 법을 등불 삼아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하신 수행자의 본보기셨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며 평생 불법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후학의 지남이 되고 있다”라고 애도했다.

조계총림 방장 현묵 스님은 법어를 통해 “스님께서는 맑은 바람처럼 오셨고, 달그림자처럼 고요히 떠나셨다. 오고 감이 없는 자리에 계셨으나, 인연 속의 이별은 깊은 감회를 남긴다”면서 “적멸에 드신 지금,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사바에 오소서. 중생을 밝히는 지혜의 종자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밝혔다.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추도사에서 “법흥 스님은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올곧이 수행의 길만 걸으셨다”면서 “불조의 혜명을 전하는 청풍납자들을 길러내신 그 모든 가르침은 곧 스님의 위대한 불사였다. 이제는 이승의 인연을 마치시고, 무애자재한 길로 나아가셨다”고 추모했다.

재가불자를 대표해 이경연 조계총림 송광사 신도회장은 조사에서 “스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실 줄로만 알았다. 차디찬 겨울 사천왕제 법회에서도 정성으로 축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고 추모하며 울먹였다.

문도 대표로는 부산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이 인사말을 전했다. 지원 스님은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이승에서의 인연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생에 다시 뵙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헌화는 문도 스님들을 시작으로 원로의원 보선·도후·밀운·암도 대종사, 중앙종회의원 진화·시공·일화 스님, 송광사 교역직 스님들, 말사 주지 및 비구·비구니 스님, 신도 대표들이 차례로 참여해 스님의 공덕을 기렸다.

영결식을 마친 뒤 법구는 인로왕번과 오방번을 앞세우고 법주, 향로, 위패, 만장을 동반한 장엄한 행렬 속에 송광사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점화되어 이승에서의 모든 인연은 장엄한 불꽃 속에 회향됐다.

한편, 법흥 대종사의 49재는 7월 7일 초재(조계총림 송광사)를 시작으로 14일(장흥 천관사), 21일(부산 문수사), 28일(부산 문수사), 8월 4일(부산 문수사), 8월 11일(고성 보타암), 8월 18일(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엄수된다.

법흥 대종사는 1931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1959년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수십 년간 수행과 후학 지도에 매진하며 회주, 조계종 원로의원 등 종단 중책을 역임했다. 생애 동안 계·정·혜 삼학의 실천과 자력 해탈, 참선 중심의 청정 가풍을 설파하며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을 남긴 선지식이었다.

세종 광제사, 시민 선명상 축제 개막

7월 6일 개막식…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진행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조계종 미래본부와 광제사,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주관하는 ‘2025 세종 선명상 축제’ 개막식이 7월 6일 광제사 경내 체험관 다목적홀과 대웅보전 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사진〉

‘광제사 마당에 핀 연꽃, 마음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4주간 매주 일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세종 시민들에게 깊은 쉼과 울림을 선사한다.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광제사 주지 현우 스님은 환영사에서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심 행정도시이지만, 마음을 쉴 곳은 많지 않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선명상이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6일 열린 개막식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시민 100여 명이 사찰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해인사, 윤달 맞아 생전예수재 입재

7월 5일 대적광전서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불기 2569년 을사년 윤달을 맞아 7월 5일 대적광전에서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혜일 스님은 법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큰 인연이지만 이생에서 지은 업이 미래의 삶을 좌우한다”며 “인과는 명확해 선은 복을 낳고 악은 과보를 부른다”고 설했다. 이어 “극락왕생은 단순한 기도로 보장되지 않는다. 예수제 같은 재의식을 계기로 업장을 소멸하고 아미타부처님을 염송하며 수행해야 한다”며 정진과 염불을 당부했다.

해인사는 윤달에 예수제와 백중일정이 겹치는 올해 〈금강경〉을 독경하고 백중 막재에 〈아미타경〉 독경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월주 대종사 가르침 이어가겠습니다”

금산사, 월주 스님 4주기 추모다례


7월 7일 열린 ‘태공당 월주 대종사 열반 4주기 추모다례재’에서 문도를 대표해 도영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제17·28대 총무원장과 원로의원을 역임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매진하며 동체대비를 실천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열반 4주기를 추모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7월 7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태공당 월주 대종사 열반 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행장 소개에 앞서 “태공당 월주 대종사께서 적멸의 모습을 나투신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금방이라도 만월당 문을 열고 나오셔서 저희 상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일어난다”며 “정법의 도량을 세우고, 종단의 중심을 바로잡는 한편 한국불교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지구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드리운 그 모든 자취가 바로 보살행으로 피어난 꽃이었다”고 추모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월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큰스님은 모든 것이 평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 진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며 “정법을 어기지 말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미얀마에서의 봉사활동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일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다”고 회상했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대종사가 입적하신 지 4년이 지났지만 큰스님께서 보여주셨던 보살행원의 삶은 지금까지도 저희 불자들 가슴에 깊이 남아있다”며 “큰스님께서 보여주신 보현행원과 자비행을 받들어 ‘제2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스님께서는 요익중생으로 중생의 아픔을 살피는 보살도와 보현행원을 실현해오셨다. 우리도 큰스님의 가르침을 함께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합동천도재 봉행

7월 6일 지원금 전달도



지장기도도량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 스님)은 7월 6일 ‘도솔암 제8차 1029 합동천도재 16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봉행된 ‘도솔암 합동천도재’는 2023년 5월 21일 입재해 2026년 3월 8일까지 1029일간 지장기도가 진행되며 기도기간에는 매 49일마다 21회에 걸쳐 49재가 봉행된다.

이날 도솔암 사부대중과 감원 성본 스님은 장학금과 경북지역 산불재난 지원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성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자들의 소중한 정성을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할 수 있어 마음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해 용문사, 청소년 마음치유 돕는다

7월 3일 남해경찰서와 MOU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와 남해경찰서(서장 박지성)는 7월 3일 용문사 법당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과 정서 회복을 위한 ‘마음테라피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 소년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차담, 발우공양, 걷기 명상, 1박 2일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승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찰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흔들리는 청소년들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태화선원 ‘그린트러스트’ 설립

개원 3주년 맞아…사찰림 보호 목적



개원 3주년을 맞은 울산 태화선원(주지 명본 스님)이 불법 홍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찰림 연구 보호 단체 ‘울산그린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등 뜻깊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태화선원은 7월 2일 대웅전에서 ‘을사년 생전예수재 입재 및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명본 스님은 인사말에서 “개원 3주년을 맞아 ‘울산그린트러스트’를 설립했다”며 “맑은 불심으로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의 건강한 환경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그린트러스트’는 지역사회와 함께 사찰림 활용 및 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이와 함께 법회에서는 설장환 신도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설 신도회장은 “무거운 직책이지만 태화선원의 발전과 신도들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실천하며 신도들과 함께 화합하는 신도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개원을 기념한 자비나눔도 이어졌다. 태화선원은 이날 자비의 쌀 10kg 200포를 통도사자비원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쌀은 통도사자비원,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울산 중구시니어클럽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흥 능가사, ‘일요가족법회’ 첫발

7월 6일 배우 강부자 초청



전남 고흥 능가사(주지 진허 스님)가 매월 정기적인 일요가족법회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능가사는 7월 6일 대웅전에서 신도와 지역 주민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첫 일요법회인 ‘강부자 초청 일요가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그동안 재일(齋日) 위주로 열어왔던 법회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요일에 봉행함으로써, 신도와 주민 모두 더 편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다. 특히 첫 초청 법사로 연기자 강부자 씨를 초청해 대중적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주지 진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불자의 삶을 살아온 강부자 선생님을 초청해 첫 일요법회를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요가족법회를 통해 누구나 찾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강사로 나선 강부자 씨는 이날 신앙과 인생, 연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저는 40년 가까이 비구니 스님들 계신 절을 다녔고, 전국 어디든 부처님 계신 곳이라면 기도하러 간다”고 말했다. 이어 “능가사 법회에 자주 동참해 부처님의 자비와 복덕을 널리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능가사는 앞으로도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다양한 초청 강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가족법회를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삼불암, 제2회 호국영령 영산대재

익산지역 보훈단체 등 동참



익산 삼불암(회주 심월 스님, 주지 법정 스님)은 6월 28일 경내 호국당 앞 특별 법단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영령 영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영산대재에서 회주 심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공덕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영산대재를 봉행하게 됐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매년 6월에 호국 영산대재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지 법정 스님은 “호국영령 영산대재에 엄숙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승’ 재창작 연극, 무대 오른다

국립극단 창작 신작 ‘삼매경’
7월 17일~8월 3일 명동예술극장
동승 도념役 지춘성, 주연 맡아
과거-현재-연극 혼재 상황 그려
7월 26~28일 접근성 회차 운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극단이 올해 새로 선보이는 창작 신작 ‘삼매경’의 이미지 사진. 희곡 ‘동승’을 재창작했다.

‘동승’은 한국 연극사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문인 함세덕이 극작, 유치진 연출로 1939년 초연됐다.

한국 희곡 중 서정적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은 ‘동승’은 깊은 산속에 자신을 두고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자승 ‘도념’의 이야기를 그린다. 작품 내 이어지는 인물들 간의 대립과 갈등, 다양한 인간 군상의 등장은 타오르는 어린 동승의 욕망에 기름을 붓는다. 불성과 인성의 갈등, 운명과 인연을 반복시키며 인간의 주체적 의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한국 희곡의 고전이자 명작인 ‘동승’이 재창작돼 ‘삼매경(원작 함세덕, 재창작·연출 이철희)’으로 무대에 오른다.

국립극단(단장 겸 예술감독 박정희)은 7월 17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창작 신작 ‘삼매경’을 공연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삼매경’은 원작 ‘동승’의 뼈대 위에 새살을 입혀 재창작한 작품이다. ‘삼매경’은 시대의 흐름을 고스란히 품은 한 편의 연극 연대기이자, 한 배우의 자전적 기억의 편린으로 다시 태어난다.

실제 1991년 박원근이 연출한 ‘동승’에서 스물다섯의 나이로 동자승 ‘도념’ 역을 맡았던 배우 지춘성이 세월을 입은 ‘도념’으로 다시 관객 앞에 선다.

하지만 연극의 배경은 사뭇 다르다. ‘삼매경’은 59세의 배우 지춘성이 34년 전 자신의 ‘도념’ 연기가 실패라 여기며 살고 있다는 설정으로 저승길에서 삼도천으로 뛰어들어 과거와 현재, 연극과 현실이 혼재된 ‘삼매경’을 경험한다는 줄거리다. 이처럼 배우의 인생과 이력이 전체적인 작품의 모티브로 활용되는 것이 ‘삼매경’의 관람 포인트 중 하나다.

연극은 이철희 연출가가 ‘삼매경’의 재창작과 연출을 맡았다. 이철희 연출가는 수많은 한국 근현대희곡 중 재창작 작품으로 ‘동승’을 택한 이유에 대해 지춘성 배우를 꼽았다.

이 연출가는 “배우가 현실에서 실제로 겪는 고뇌와 의지를 역으로 극 속으로 데려와 현실과 연극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 지점을 들여다보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립극단은 ‘배리어 프리’ 트렌드에 맞춰 7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한국수어통역을 비롯해 한글자막, 음성해설, 무대모형 터치투어, 사전 대본열람, 이동지원을 제공하는 접근성 회차를 운영한다.

한편, 연극 ‘삼매경’ 공연 예매는 국립극단과 NOL티켓(구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사찰음식점 발우공양 여름 맞이 별미 출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이 7월부터 여름 한정 메뉴를 출시한다.

‘발우공양’은 제철 재료를 활용해 계절마다 코스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코스는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등 총 4가지로 운영하며, 각 코스에는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별미를 포함한다.

대표 메뉴로는 △표고버섯냉면 △우무묵잣콩국 △참외무침 △애호박메밀전병 등이 있다.

발우공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예약은 발우공양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예약에서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발우공양이 선보이는 여름 메뉴들.

단청 명장이 구현한 연화장세계

국립무형유산원 상설테마전
‘연화장 세계와 단청’ 개최
故홍점석 단청장 작품 전시


홍점석 단청장의 작품 ‘금단청 현무도’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보유자였던 석운 홍점석(1939~2024) 선생은 단청을 통해 연화장세계를 그려내고자 했던 신심 높은 불자 장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7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열린마루 1층 상설전시실에서 2025년 상설테마전 ‘연화장 세계와 단청, 석운 홍점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故 석운 홍점석 거사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단청의 장엄하고 화려한 색채를 통해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그의 작품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 ‘단청의 길’, ‘연화장 세계를 열다’까지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에서는 석운 거사가 생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에 출품했던 ‘청룡·백호 단청문양’을 비롯해 ‘대량초 단청문양’, ‘금단청 현무도’, ‘양산 통도사 단청 모사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단청의 길’은 석운 거사가 평생을 단청장엄에 매진해 온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보유자인정서’, ‘단청 작업 일람표’, ‘단청 작업복’, ‘계첩’ 등 그의 기증품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전시 섹션인 ‘연화장 세계를 열다’에서는 이 같은 석운 거사의 불교 및 작품관이 표현된 ‘단청문양도병풍’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어린 시절 암자를 다니며 단청, 탱화 등 불교미술에 호기심을 갖게 된 석운 거사는 1969년 조계종 단청문양 조사단에 참가하면서 월주 덕문 스님을 만나 단청에 평생을 매진하게 된다. 법명인 ‘석운(石雲)’도 그림 스승 월주 덕문 스님에게 받았다.

스승이 주는 시왕초, 보살초 등을 1000장씩 그려내며 실력을 쌓은 석운 거사는 전수장학생(1977년), 보유자 후보(1982년)를 거쳐 1997년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청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석운 홍점석 선생의 삶이 이번 전시로 다시 한 번 되새겨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달라이라마 환생 존속 발표 티베트는 환영, 중국은 반발

7월 2일, 제도 존속 공식 발표
세계 불교단체 환영 입장 표명
7월 5일, 90세 축하법회 봉행


지난 5일 다람살라에서 봉행된 구순 기념 법회에서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 뺀빠체링과 인사하는 달라이라마.
사진 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7월 2일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환생 제도에 대해 “제도를 존속할 것”이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

티베트 불교권의 사회와 각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힌데 반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7월 5일에는 달라이라마의 세수 90세를 축하하는 대규모 기념 법회가 인도 다람살라에서 봉행되는 등 기념행사도 잇따르고 있다. 달라이라마를 둘러싼 각계의 반응에 대해 세계 여러 외신들이 앞 다퉈 특별 보도하고 있다.

앞서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7월 2일 달라이라마가 직접 성명서를 낭독하며 “달라이라마 제도를 존속할 것이며 달라이라마 재단만이 미래 환생을 인정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티베트 불교권에 속한 여러 국가와 전세계의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앞서 여러 차례 달라이라마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으나, 이번 성명에서 밝혔듯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제도를 존속키로 결정했다. 특히 발표가 이루어진 시기, 인도 다람살라에서 제15차 티베트 종교지도자 대표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해당 발표 직후 회의에 참석한 티베트 불교 각 종단의 종정들과 불교단체의 대표들은 환생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악의적 간섭을 거부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티베트 망명정부 내각은 “(달라이라마 제도의 지속) 발표는 티베트와 티베트 대중의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의 지속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나타낸다”며 달라이라마의 발표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공식성명을 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달라이라마나 판첸라마와 같은 고위 라마의 환생자는 반드시 금병추첨으로 선택돼야 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병추첨은 청나라 때 중국황실의 권유로 도입된 달라이라마 선출 제도 중 하나다. 금항아리 안에 환생 후보자들의 이름을 넣어 제비뽑기식으로 선출하는 방법인데, 현 달라이라마는 금병추첨을 거치지 않고 선출돼 티베트 정부의 승인으로 확정됐다.

중국불교협회 역시 “역대 달라이라마는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칭호를 받았으며 이것이 달라이라마의 칭호의 종교적 지위와 역사적 정통성의 근원”이라며 “중앙정부가 환생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결코 14대 달라이라마의 개인적 재량에 따를 수 없다”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반박에 대해 티베트 불교 권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연구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흔히 이루어지던 책봉제도에 대한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이러한 논리라면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던 당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현대에도 완전히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티베트 학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종교적인 전후맥락은 삭제하고 오직 중국 황제가 금병추첨을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13대 달라이라마는 국민당 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전통적인 중국 황실이나 새로운 국민당 정부의 관리 및 간섭을 모두 거부한다는 공식 발표를 낸 바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8563-2356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상 놓은 자리에 ‘불교미술 미래’ 있다”

〈像〉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 창립
7월 5일 기념 학술대회 개최
유진 왕 하버드대 교수 강연

불교미술 미래 방향성 제시
“고정 · 전통적인 형상 아닌
흐름, 관계 속에 미래 있어”



유진 왕(Eugene Wang)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7월 5일 열린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미술의 미래는 고정된 형상이나 전통적 도상에 있지 않다. 그것은 흐름 속에 있으며 삶 자체의 움직임 속에 있다.”

세계적 불교미술사학 석학인 유진 왕(Eugene Wang)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는 7월 5일 열린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 창립 기념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불교미술 미래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불교미술의 미래는 무엇인가(What is the Future of Buddhist Art)’를 주제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왕 교수는 “불교미술이 승리와 위기의 지점에 동시에 서 있음”을 진단하며 불교미술의 세계 흐름을 조명했다. 왕 교수는 독일의 주택가 정원, 미국 플로리다 집 앞마당까지 부처상이 넘쳐나는 것을 예로 들며 “불교미술이 세계적으로 영적 실천의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 등 아시아에서 불상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전시되거나 현지 사찰에서 신앙으로 대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왕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왕 교수는 “불상은 전 세계적인 미적 ‘링구아 프랑카(língua franca·공용어)’가 됐지만, 불교미술은 이제 역사적 기억과 문화유산이 돼 버렸다”면서 “불교미술은 현대에 들어와 제 기능을 다한 듯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가 평가한 현대 시기 제대로 된 불교미술 작품은 故백남준(1932~2006)의 작품 ‘TV붓다’(1974) 정도다.

왕 교수는 불교미술의 미래는 더 이상 ‘도상(Icon)’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영국 미학자 허버트 리드의 ‘삶의 리듬(Rhythm of Life)’ 개념을 중심으로, 불상 없이도 불교적 세계관을 시각화한 중국계 화가 아이린 초우(Irene Chou)의 회화 작품 ‘보라색 우주’를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초우의 회화는 고전적인 불교 상징 대신 ‘우주적 흐름과 생명 에너지’를 먹과 곡선의 리듬으로 구현함으로써 에너지의 맥동 속에서 자기 자신이 우주가 되는 순간을 그려낸다.

이에 왕 교수는 “초우의 ‘보라색 우주’는 단지 우주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는 ‘불이(不二)’라는 불교적 세계관의 회화적 구현”이라고 상찬했다.

이어 “이제 불교미술은 형상이나 도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과정과 흐름, 관계로 나타난다. 이것이 21세기 불교미술의 가능성”이라며 “정적인 상(像)으로서 불상이 아니라 움직임의 리듬으로 구현되는 불성(佛性), 유기적 흐름으로 재현되는 마음의 상태로 불교미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아시아 종교 전통 미술을 연구하기 위해 창립된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는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정각 스님이 초대 소장을 맡았으며, 김연미(이화여대)·신광희(충북대)·엄기표(단국대)·서지민(충북대)·이승혜(동아대)·김현중(전남대)·김자현(동국대) 교수 등 전문학자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했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 복제본으로 돌아온다

日관음사, 7월 6일 부석사 찾아
3D 스캔자료, 복제동의서 전달
자료 통해 복제본 3점 제작해
부석사, 환수博 등에 봉안 예정



왜구에게 약탈돼 일본으로 넘어간 뒤 647년 만에 돌아왔다가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일본에 반환됐던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서산 부석사 관음상)’이 복제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일본 쓰시마 관음사 전 주지 다나카 세코 스님은 7월 6일 서산 부석사를 찾아 관음상 3D스캔 자료와 복제 동의서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서산 부석사 회주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지 원우 스님과 다나카 세코 스님, 이상근 문화유산환수연대 이사장, 이현상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교류협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2012년 장물로 국내로 반입됐으며 도굴범들이 체포된 후 이뤄진 조사에서 원(原)봉안처가 서산 부석사임이 알려지며 도난과 환수 사이에서 논란을 겪게 됐다. 이후 7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2023년 10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일본 반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후 서산 부석사는 정부와 일본 관음사와 합의해 지난 1월 25일부터 100일 동안 친견법회를 봉행했고 5월 10일 일본으로 반환됐다. 일본 관음사는 5월 12일 법요식을 열고 반환을 알렸고, 이후 관음상은 쓰시마 박물관에 수장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서산 부석사는 일본 관음사 측에 관음상 복제본 제작 동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그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 관음사가 입장을 바꿔 복제본 제작에 동의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 관음상의 3D 스캔 파일과 복제동의서가 부석사에 전해지게 됐다.

다나카 세코 스님은 “지난 5월 10일 이운법회 당시 마주한 한국 불자들의 눈물을 일본에 돌아가서도 잊을 수 없었다. 이에 부석사를 위한 3D스캔과 복제 동의를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승낙받았다”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한국과 일본 불자들에게 모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석사 회주 주경 스님은 “관음상은 일본 관음사로 돌아갔지만 똑같은 모양의 복제본 관음상이라도 모시고 싶어 하는 게 한국 및 서산 부석사 불자들의 소원이었다”면서 “한일 양국 불교계의 불심과 신뢰로 원만하게 관음상 복제본을 모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복제를 위한 3D스캔자료가 전달되고, 복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서산 부석사 관음상 복제본 제작이 진행된다. 관음상 복제본은 3점이 제작돼 서산 부석사와 아산 환수문화기념박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각각 봉안될 예정이다. 봉안 시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달식에 배석했던 이상근 문화유산환수연대 이사장(환수기념박물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음상 복제본이 돌아온 것으로 끝이 아니다. 완벽한 복원을 위해 일본 향토사료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복장물의 공개도 관음사에 요청했다”면 “1978년 일본에서 발간된 〈대마의 미술〉 책자에 복장 자료가 확인되는데 지금은 복장물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복장 발원문이다. 1951년 쓰시마 관음사 주지 안도가 발견한 ‘결원문’이라는 제목의 발원문에는 “천력(天歷) 3년 2월(1330년) 서산 부석사에 관음상을 당주(堂主)로서 봉안하다”고 기록돼 있다.

이 이사장은 “최종 목표는 진본 관음상의 환지본처”라며 “일본 쓰시마 박물관에 약탈품을 수장하지 말 것과 양국 선린 외교를 위해서라도 본래 자리도 관음상을 돌려놓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② 일수사견

집착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一水四見

조선시대 학자 성현(1439~1504)은 세간의 야사, 풍속, 기이한 일화, 해학과 애정담 등을 모아 〈용재총화〉를 편찬했다. 제8권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실려 있다.

어느 날 성현이 경복궁 안으로 날아든 까마귀를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느낌을 물었다. 궁녀는 이를 불길한 징조라며 얼굴을 찌푸렸고, 의관은 까마귀의 간이 약재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도화서 화가는 깃털의 윤기와 형태가 그림 그리기에 좋다고 했으며, 한 시인은 훌륭한 시적 소재라고 반겼다. 하나의 까마귀를 두고도 각기 다른 해석과 반응이 나왔던 것이다. 이를 두고 ‘동물이관(同物異觀)’이라 한다.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있다. 바로 ‘일수사견(一水四見)’이다. 하나의 물을 네 존재가 각각 다르게 본다는 뜻이다. 인간에게는 마실 수 있는 물이고, 천상의 중생에게는 수정으로 된 궁전, 물고기에게는 삶의 터전, 탐욕에 물든 아귀에게는 피고름으로 보인다. 이는 유식불교의 〈성유식론〉 제8권에서, 사견과 집착으로 인해 사물을 왜곡해 인식하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비유다. 현대 인지심리학에서도 지각(perception)의 차이를 설명할 때 이와 유사한 비유가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사물과 사건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까? 마음이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인데, 왜 작동 방식은 제각각일까? 〈화엄경〉 ‘보살문명품’에서 문수보살이 묻는다.

“불자여, 마음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갖가지 차별이 생겨나나이까?”

이에 각수보살은 “중생이 지닌 ‘업’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여기서 말하는 업(業)은 단지 전생의 죄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자의 삶의 방향성과 의도, 그것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 등, 가치와 욕구에 따라 형성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각자가 지닌 의도와 욕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수사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지와 욕탐이 빚어낸 사견과 집착,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라는 것이다. 자신이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시선과 해석을 존중하며,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확증편향과 혐오, 갈라치기와 배제가 만연한 오늘날,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준다. 〈화순 불암사 주지〉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9~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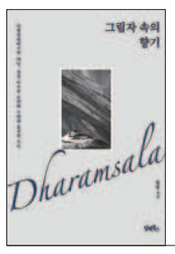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생전예수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출판사	6	흔들릴 땐 마음수업	법상	모과나무
2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7	달빛처럼 꽃향처럼(자애경 강의)	아신빤딧짜	붇다담마연구소
3	무아 윤회 문제의 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8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관음기도	불영 자광	민족사
4	만다라 명상 컬러링북	임시연	담앤북스	9	몽산법어언해	장윤희	채륜
5	이뭣고(경봉스님수행담)	김현준	효림	10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범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도표로 읽는 유식입문:마음이란 무엇인가	안환기/배종훈 그림	민족사	6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3	위없는 지혜:금강경반야심경 해설	에드워드 콘즈	사유수	8	맛지마니까야(1) 중간길이로 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 허주형	운주사	9	디가니까야(3) 길게 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아비담마 실천하기	아신 자나까비왐사	담앤북스	10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다람살라에서의 38년



그림자 속의 향기
청전 스님 지음
담앤북스 / 1만6800원

달라이라마 첫 한국 제자 청전 스님
5년만 에세이…수행·순례·봉사 회고
25년째 자비나눔 "청빈 자체가 수행"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1987년 7월 1일 인도에 첫발을 디딘 후 달라이라마 존자님과의 인연으로 다람살라 한자리에서 38년을 지냈습니다. 가끔 한국을 방문하면 아직도 인도에 있냐고, 나이가 적지 않으니 이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안부를 겸해 묻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다람살라가 '고향'입니다. 책으로 소식을 전한 지도 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 그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첫 한국인 제자인 청전 스님이 신작 에세이 〈그림자 속의 향기〉를 펴냈다. 그간 네 권의 에세이를 낸 스님이지만 이번 책은 "좀 자신 있다"고 말한다. 스님의 삶과 인생철학 그리고 수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과 수행기, 오지 마을에 전한 자비나눔 활동, 다람살라와 한국을 오가며 펼친 구도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청전 스님은 1972년 유신 선포 후 다니던 전주교육대학을 자퇴하고, 가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을 다니던 중 구산 스님을 만나 1977년 송광사로 출가했다. 이후 10년간 지리산 백장암, 망월사, 해인사, 범어사 등 여러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1987년 성지순례를 떠난 인도에서 운명처럼 달라이라마를 만나 북인도 다람살라에 터를 잡고 티베트 불교를 수학하며, 달라이라마의 한국어 통역과 법회 수행을 도왔다.

책에는 출가에서부터 달라이라마와의 첫 만남, 다람살라에서의 수행, 폐관 수행 등 티베트 불교 수행 전통, 스님의 일상을 담았다. 특히 아침마다 직접 빵을 굽고 가을이면 히말라야 감을 익혀 갈무리하고 겨울철이 오면 손수 김장하는 스님의 일상을 사진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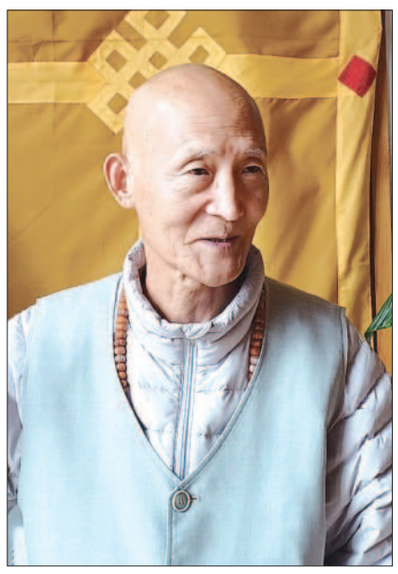
라다크에서의 자비 나눔 활동도 자세히 소개한다. 스님은 2000년부터 히말라야를 넘어 라다크의 곰빠(절)를 방문해 의약품과 생필품을 나눠 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던 당시에는 해발 4000~5000미터 고개를 몇 개나 넘고, 다시 말과 나귀에 물건을 실어 마을까지 날라야 했다.

소독약과 진통제, 소화제 같은 간단한 약은 직접 나눠주고 특수한 약이 필요한 이들은 시내 약국이나 병원으로 안내한다. 백내장 등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기꺼이 수술비를 내준다. 라다크의 사람들이 청전 스님을 '착한 의사(Good Doctor)'라 부르는 이유다. 요즘은 노스님들의 틀니를 맞춰 주고 고산지대 주민들에게 태양열로 가동되는 소형 전기장판을 나누고 있다.

이 같은 봉사활동을 해 온 공로로 2015년에 만해대상(실천분야)을 수상했다. 스님은 봉사에 대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일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려서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이 수행과 봉사 외에 또 하나 마음을 쓰는 일은 순례다. 평생 자신이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라다크와 티베트의 노스님들을 모시고 몇 차례나 해외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여권을 만드는 일부터 숙소 예약, 여행지 안내 등 모두가 스님의 몫이지만 난생 처음 부처님 탄생지를 참배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또다시 순례를 구상한다.

가난하지만 맑은 눈빛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들을 보며 청전 스님은 말한다. "성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같아져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며 "청빈 자체가 수행"이라고.





1987년 인도에 첫발을 디딘 청전 스님은 달라이라마와의 만남 이후 지금까지 38년간 다람살라에서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



2007년 라다크의 틱세 곰빠에서 노스님 무릎에 파스를 붙여 주는 청전 스님.



2024년 라다크에서 메메 체링 스님, 뀐촉 도제 스님과 함께한 청전 스님.

사진 제공=담앤북스

새로 나온 시집

경봉 스님 선법문 엮은 '수행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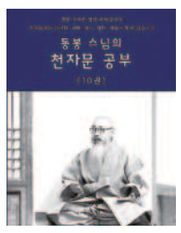


이뭣고
김현준 엮음
효림
8500원

근현대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경봉 스님의 법문을 모은 책이다. 경봉 스님의 유발상좌인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은 "스님의 법문을 최대한 모아 두 권의 책으로 펴내겠다"는 원을 세우고, 지난해 7월 '생활도담집'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를 출간했다. 〈이뭣고〉는 '수행도담집'으로 경봉 스님의 수행담과 참선에 대한 가르침, 선사들의 무애자재한 이야기를 가려 담았다. 표지에 사용된 '이뭣고'는 스님의 친필이다.

책을 엮은 김현준 원장은 현재 월간 '법공양' 발행인 및 편집인, 효림출판사와 새벽숲출판사 주필 및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파자로 푼 천자문 해설 10권 완결



동봉 스님의 천자문 공부 10권
동봉 스님 지음
도서출판 도반
1만8000원

동봉 스님(광주 우리절 주지)이 2023년부터 펴내고 있는 〈천자문 공부〉가 드디어 10권으로 완결됐다. 10권에서는 '주참적도(誅斬賊盜)'부터 마지막 구 '언재호야(焉哉乎也)'까지를 풀이한다. 낱글자를 하나하나 파자(破字)하며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끌어낸다.

동봉 스님은 "한문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언어와 자연, 관계의 이치를 배우게 되고 인문·역사·예술적 소양이 높아진다"며 "천자문을 통해 자신을 보는 마음이 생긴다면 스스로의 잠재력을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곤지암 우리절 창건주이자 회주로 책과 법문 등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재가수행자가 전하는 불교 가르침



템플스테이 가이드북
고대승 지음
좋은땅
1만원

제목은 〈템플스테이 가이드북〉이지만 불교의 주요 가르침인 연기와 무아, 사성제, 팔정도, 오계, 육바라밀, 윤회, 중도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서술한 책이다. 저자는 연기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기법이란 자연 세계와 인간 생활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변함없는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환생과 윤회에 대해선 "환생은 불멸의 아트만이 몸을 바꿔 존재하는 것으로 오직 믿음의 영역에 속한다. 반면 윤회는 의식의 흐름에 관한 개념으로 철저히 인연생기(因緣生起)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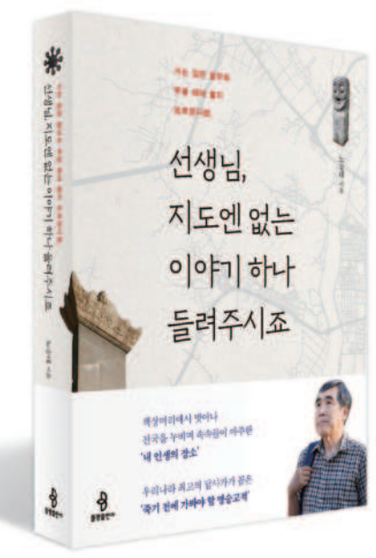
"길을 걷다 멈춘 곳에 이야기가 있다"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전국을 누비며 마주한 **내 인생의 장소**
우리나라 최고의 답사가가 꼽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명승고적**

가는 길은 알아도
무얼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선생님,
지도엔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노승대 지음
520쪽 | 올컬러 | 32,000원



청룡열차보다 흥미진진하고,
유명 관광지보다 마음에 오래 남는
길 위의 박물관,
우리 땅 인문 여행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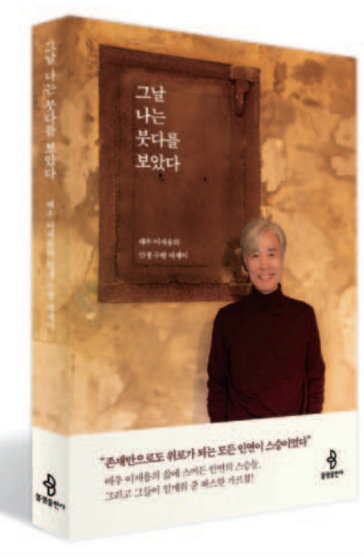
불자이자 배우 이재용의 삶과 수행,
그리고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

마음이 공허하고 울적할 때
곱씹을수록 재밌고 가슴 뭉클해지는 에피소드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된다.

배우 이재용의
인생 수행 에세이

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

이재용 지음
240쪽 | 18,000원



이 책에 담긴 글이 예사롭지 않다. 삶을 관조하고 세상을 달관한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울림이 있다. 한 편 한 편이 감동 그 자체다.
●● 강원국(《대통령의 글쓰기》 작가)

문장은 뜨겁고 사유는 깊다. 이것은 배우 이재용이 써내려간 '살아있음'의 기록이자, 혼란한 세상을 떠도는 모두에게 끈질기게 질문하는 책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냐고.
●● 김별아(소설가)

이 책의 독자들은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난 뒤 세상의 수많은 작은 것들이 사소하지 않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참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상은 참 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말이다.
●● 김경일(인지심리학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명상, 삶 자세 바꾸는 능동적 행위”



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
최순용 지음
수오서재 / 1만7000원

배희정 객원기자 hbpress@hyunbul.com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자기를 살피기가 쉽지 않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생각에 이끌릴 때 명상은 자신의 내면을 다독이고 집중력을 회복하는 힘이 된다.

〈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는 부장검사 출신의 최순용 변호사가 30년 넘게 이어온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치열한 법조계에서도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 명상을 꼽는다. 그가 말하는 명상은 특별히 종교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다.

책에는 마흔 무렵, 명상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외부의 평가나 성취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만족과 감사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저자의 통찰이 담겨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마흔’을 앞둔 ‘직장인’은 물론, 각기 다른 삶의 시점에서 명상을 찾는 이들에게 이 책이 명상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명상, 현재에 머무는 기술 △알아차리면 변화한다 △모든 삶이 스승이고 수업이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현실로 뛰어들기 등 5개 주제에 명상 이야기 34가지를 수록했다. 각

최순용 변호사의 34가지 명상 이야기
호흡 · 걷기명상 등 생활 명상법 수록

장 말미에는 명상을 접하게 된 계기부터 삶의 변화 등 저자의 체험담을 곁들였다. 종교에 바탕을 둔 여타 명상서와 달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것이 특징이다.

책은 저녁 식사나 엘리베이터 안, 잠깐의 산책처럼 일상에서 하루 10분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명상법을 비롯해 명상의 기본·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또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명상의 본질이라며, 명상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를 바꾸는 능동적인 행위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명상이 단순한 휴식이나 도피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알고 실천할 힘을 기르는 적극적 준비 과정이라면서, 긴장과 스트레스, 감정 기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야말로 명상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기회라고 설명한다. 또 명상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 ‘잘함’과 ‘못함’의 구분이 없다며 꾸준한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명상 실습을 하는 대중들의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책은 명상이 매일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전한다. 저자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바르게’ 알며, ‘지금 해야 할 일을 망설임 없이’ 하고, 이에 걸맞은 자세를 갖추어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할 때에야 비로소 균형 잡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 최순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 재직 시 위빠사나 명상으로 삶의 균형을 찾았다. 자유롭게 명상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부장검사를 사직하고, 이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불교에 기반한 명상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아카데미, 삼성레포츠센터 등에서 명상 수업을 진행했고, ‘유나방송’ 등 온라인 채널에서 명상을 알리고 있다. 우 조티카 스님의 〈붓다의 무릎에 앉아〉, 〈여름에 내린 눈〉을 번역한 바 있다.

“‘법화경’ 통해 더 나은 세상 모색하길”

장재진 교수, 7월 4일 출간기념회
“AI시대 불교 담론 길 열어” 평가

장재진 교수(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의 신간 〈법화경의 세계와 유토피아〉(민족사)의 출간기념회가 7월 4일 부산 쿠무다론서트홀에서 열렸다.

〈법화경〉의 시대적 의의와 현대적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는 법석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와 학계·문화예술계 등의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재진 교수는 “경전은 박제된 텍스트가 아니라 삶을 비추는 살아 있는 실천의 거울”이라며 “〈법화경〉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는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은 축사에서 “이 책은 회삼귀일(會三歸一)의 대승정신을 바탕으로, 분열된 한국사회에 화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모두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번 저술은 장재진 교수의 평생 사유가 응축된 역작”이라며 “기존 요약 중심의 〈법화경〉 해석을 넘어 상징 언어와 실제 세계의 구조를 동시에 펼쳐 보인 주석서로, 양자역학과 AI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미래학적 불교 담론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욱태 동국대 부산총동창회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상천 동명대 총장, 허남식 신라대 총장, 류동근 한국해양대 총장, 김호진 KNN 부사장, 유원규 해동고 교감 등도 책 발간을 축하했다.

이어진 북토크에서는 기후 위기와 문명 전환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음 혁명’과 ‘정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7월 4일 열린 출간기념회에서 장재진 교수(가운데)가 패널 문광 스님과 사회자 진재운 KNN 국장과 함께 ‘저자와의 대담’에 참여하고 있다.

장재진 교수는 동국대에서 철학 박사, 한국해양대에서 국제지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근대 동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와 유토피아〉, 〈상수학과 부의 원리〉, 〈4차 산업혁명과 종교문화콘텐츠〉 등을 펴냈으며, 동아시아 사상과 불교문화콘텐츠 연구에 정진해 오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명상 지침·불교 핵심 교리 담아

통찰명상회 조셉 골드스타인 저서
30번째 대원불교학술총서로 출간



통찰의 체험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
운주사 / 1만8000원

반세기 동안 불교 명상의 고전으로 읽힌 〈통찰의 체험〉이 새롭게 출간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미국의 명상 수행자 조셉 골드스타인이 1976년 출간한 첫 저서이자, 명상 분야의 고전으로 알려진 〈통찰의 체험〉을 대원불교학술총서 제30권으로 출간했다.

저자 조셉 골드스타인은 인도, 티베트, 미얀마 등지의 저명한 불교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미국의 명상 수행자로, 통찰명상회와 배리불교학연구센터의 공동 창립자이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세쿼이아 국유림에서 진행한 열흘간의 집중 수행을 30일간의 수련회 형식으로 재구성한 첫 저술이다.

책은 좌선, 걷기 명상, 일상생활 수행 등 명상 지침을 전하는 한편, 업과 무아,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 등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함께 소개한다. 더 나아가 죽음과 자애, 깨달음의 요소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담아 독자가 불교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깨닫는다는 것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는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며, 그 마음을 계발하는 방법이 명상임을 강조한다.

깨달음의 요소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챙김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법에 대한 조사 △마음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겨내는 노력 △대상에 대한 강렬한 관심인 환희 △모든 격정이 사라진 상태인 경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머무는 집중 △마음이 고른 평정심 등을 제시한다.

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하는 여섯 과정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 있음과 마음챙김의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일상에서 집중 명상 수행을 위해 마음챙김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두 차례 한 시간 남짓 규칙적으로 좌선 수행하라고 조언한다. 또 식사나 걷기 등 일상생활을 명상의 시간으로 만들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세상사에도 매 순간 다르마가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2020년판 서문에서 “이 책은 불교 명상에 관한 간단하고 직접적인 안내서로, 불교 가르침의 여러 측면과 삶과 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담았다”면서 “처음 출간된 이후 사회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해 우리가 모든가 존재의 이익을 위해 깨어나도록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발간사에서 “종교계에도 새로운 변혁이 불가피해진 이때,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불교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대원불교총서를 발간하고 있다”면서 “이 총서가 한국불교의 중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희정 객원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특별인터뷰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

“풍경소리는 회향해도 찬불가는 남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좀 다녀봤다는 사람이면 들어봤을 노래. 20년 전 신입기자 시절, 첫 연등회 취재에서 접한 뒤 한동안 입에서 흥얼거리게 만들었던 ‘마약송’. 바로 찬불가 ‘오늘은 좋은날’이다.

‘오늘은 좋은날/ 부처님오신날/ 온갖 꽃 피어나는/ 만 생명 축복의 날….’ 이제는 고전이 된 대중 찬불가 ‘오늘은 좋은날’을 작곡한 이가 바로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다.

1995년 창작 찬불동요·찬불가 보급을 위해 ‘좋은벗 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를 창립한 이래 이 대표는 쉬지 않고 음반을 발매하며 불음포교에 매진했다. 그런 그가 6월 25일 자신의 SNS에 “풍경소리 60집으로 회향합니다”라는 글로 풍경소리가 진행했던 불음포교 사업의 회향을 대중에 알렸다. 소식은 삽시간으로 퍼졌고, 전국의 스님과 불자들의 격려와 문의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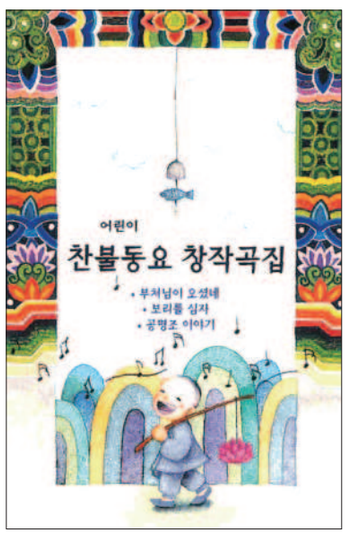
7월 4일 만난 이 대표는 ‘풍경소리 사업의 회향’이 “하루 이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5년 전부터 마음먹고 준비해 온 일”이라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음반과 사무실 정리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저간의 상황을 전했다.

“처음은 카세트테이프로 시작했죠. 이게 CD로 변화했고, 이젠 USB와 음원 스트리밍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CD가 음원기록장치로 좋습니다. 그래서 풍경소리는 고집스럽게 59집까지 CD와 USB로 병행해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반들의 재고들이 상당했는데 지난해부터 풍경소리 음반들을 연등축제 기간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인연 있던 스님과 단체에도 보내고요. 지난 5월 28일에는 전법회관 사무실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지막 음반을 발매한 것이죠.”

30년 동안 자신이 가진 예인(藝人)으로서의 역량을 투여한 불음포교의 회향에 아쉬움은 없을까. 이 대표는 “이제는 회향할 때”라고 덤덤히 말했다.

“부처님 법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 그래도 무언가 종결어미는 만들어야 싶었습니다. 풍경소리 30년, 60집이라면 도반들과 스님들도 박수는 쳐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마지막 음반 녹음할 때 함께 했던 동생들이 ‘선생님 진짜 그만인가요’ 할 때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죠.”

마지막까지 함께한 동생들에게 이 대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한 일이 아니지 않냐. 불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노래로 인연돼 30년을 활동했는데 지금 이정도면 회향하는 게 맞다”고 달랬다.



좋은벗 풍경소리 1집 음반 표지.

풍경소리 찬불음반 60집으로 회향
30년 동안 60집 찬불가 음반 발매
‘오늘은 좋은날’ 등 700여 곡 담겨

5년 전부터 준비 지난해 정리 시작
“아쉬움 있지만, 이젠 회향할 시기
다음세대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

“자생적 불교문화 생태계 전무” 지적
악보 복사 등 불교계 저작권 개념 無
현재 산사음악회 정체성도 모호해져

인생 3막, 다시 ‘음악인’ 본령으로
9월 ‘덕신 스님 헌정 음악회’ 계획
“좋은 노래 만들고 부르고 싶어요”


이종만 대표는… 1959년 서울 출생. 서울 보성고 재학시절 브라스밴드에서 음악의 기초를 쌓았다. 대학 진학 대신 생업을 선택해 레스토랑에서 통기타 가수로 공연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포크노래모임 ‘참새를 태운 잠수함’에서 활동하다가 해군 군악대에 입대했다. 제대 후 1988년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을 타이틀곡으로 한 1집 앨범 ‘이종만’으로 데뷔하고 4집까지 발표하며 대중가수로 입지를 다졌다. 이후 조계사에서 만난 황학현 씨에게 찬불가 작곡을 요청받은 게 인연이 돼 불교음악인으로 30여 년을 살았다. 좋은벗 풍경소리를 이끌며 30년 동안 찬불동요 · 대중 찬불가 음반을 60집 발간했다. 앨범 수록곡만 700여 곡에 달한다.



좋은벗 풍경소리 60집 음반 표지.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지휘하고 있는 이종만 대표 모습.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창 지휘를 준비 중인 이종만 대표.

종로와 불교, 음악이 좋았다

풍경소리의 시작과 끝에는 모두 이 대표가 있다. 사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 여의도 연예계에게서 꽤 알려진 통기타 가수, 요즘 말로는 ‘싱어송라이터’였다. 그가 음악을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서울 혜화동 보성고 재학 시절이었다. 보성고는 브라스밴드로도 유명했는데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이 대표는 브라스밴드에 가입하고 음악적 소양을 쌓았다. 악기도 제법 잘 다뤘고 재능도 있었다. 하지만 가계가 기울며 대학 진학이 아닌 레스토랑 통기타 가수로 취업해 생계를 이었다.

대학 대신 선택한 ‘가수’의 길에서 만난 선연(善緣)들로 인해 ‘참새를 태운 잠수함’에서 활동했고, 이 시기는 대중음악 가수로서 그의 자양분이 됐다. 해군 군악대를 제대 후에는 이 대표의 재능을 알아본 음반회사 대표의 눈에 들어 1986년 1집 음반 ‘이종만’을 냈다.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장돌뱅이’ 등이 수록된 앨범은 약 13만 장 가량 판매되며 인기를 얻었다. 이후에도 4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대중음악 가수로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반골 기질이 강했던 그에게 프로듀서와 음반회사 대표 눈에 들기 위해 머리를 숙여야 했던 당시 여의도 방송·연예계 정서는 맞지 않았다. 어디 마음 둘 곳 없이 휑한 벌판 같던 이 대표에게 불교와의 인연이 찾아왔다.

“10~20대 삶에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끓어오르는 울화 같은 게 있었어요. 대중음악 가수로서 입지는 다졌지만 삶은 거칠고 팍팍했어요. 어느 날 조계사 어린이합창단을 가르치던 친구(故유익상)의 소개로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황학현 씨를 만났고, 찬불가 작곡을 부탁해 한 곡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종로가 마음에 들어온 것이.”

그러던 어느 날 학생들이 카세트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하는 모습을 봤다. “뭐하는 것이니”라고 묻자 학생들은 “여름불교학교에서 찬불가와 율동을 가르치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리니 녹음해 가져가서 연습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즉석에서 악보를 그려주고 반주 음악을 연주·녹음해 전달해 줬다. 학생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이를 본 이 대표는 황학현, 최미선 씨 등과 의기투합해 여름·겨울 어린이불교학교에서 사용할 찬불 동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풍경소리’의 시작이다.

이해타산적인 여의도보다 그래도 사람 냄새나는 종로가 좋았던 이 대표는 점차 여의도보다 종로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자신을 괴롭혔던 불같은 울분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사그러졌다. 그렇게 그는 불교음악인이 되어갔다.

단일음반 ‘60집’이란 금자탑

1995년 시작된 풍경소리는 매년 2차례 창착 어린이 찬불가(찬불동요) 음반을 발매했다. 그렇게 30년 동안 쉬지 않고 60집을 선보인 것이다. 음반을 통해 세상에 소개된 찬불동요, 찬불가만 700여 곡에 이른다. 단일 음반 중에는 한국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부침도 적지 않았다. 재정난으로 인해 10집까지만 발매하려 한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스님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5년 정도 운영했을 때 재정난이 심해서 10집까지만 하고 접으려고 했습니다. 종로에서 ‘마음공부’한 것을 갖고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 음악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속리산유스호스텔에서 어린이 찬불율동 강습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왔는데 운문사 학인·대중 스님들의 팩스가 왔더군요. 3~4장에 달하는 팩스에 스님들은 ‘그만두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빼곡이 채우셨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편환 500만원을 보내셨어요. 팩스를 받아보는데 참아왔던 눈물이 올라오더군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이 대표는 바로 당시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소임을 보고 있던 덕신 스님(대구 대륜사 주지)을 찾아갔다. “풍경소리 사업을 접으려고 했는데 운문사 스님들이 500만원을 보내주셨다. 저는 이 큰 돈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하자 덕신 스님은 함께 운문사로 갈 것을 제안해 약속을 잡고 운문사에서 대중 스님들을 만났다. 이후 대중방에서 운문사 대중에게 삼배를 올린 이 대표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들른 식당에서 덕신 스님은 지현 스님(안동 임강사 주지)에게 연락해 “이종만 선생이 답답한 사람이라 이리 두면 안 될 것 같다. 스님께서 총재를 맡고 제가 회장을 맡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풍경소리는 스님들과 유대로 더욱 단단해졌고, 이후 대중 찬불가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됐다.

“‘불교문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풍경소리’의 회향은 앞으로 창작 찬불가를 제작·보급할 사람과 단체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어느 때보다 ‘힙한 불교’임을 자부하는 시기, 정작 자생적 불교문화 콘텐츠가 미비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은 ‘불교문화 생태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악보집을 발매해도 모두 복사해 공유하고 음반도 구하지 않고 돌려 듣는, 저작권이 형성·보장되지 않는 현 구조는 전문 인력이 불교계에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음악계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5년 전부터는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음반이 거의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악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악보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복사돼 전국에 배포됐어요. 저작권이 강화된 시대라고 하지만, 불교 안에는 잘 이뤄지지 않아요. 요즘은 음원 스트리밍이 대세인데 조계종에서 음원 관리 대행사나 미디어 관리 기획사 혹은 부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불교 안에서 신심 있게 일할 수 있는 창작자들이 생깁니다.”

자생적 생태계가 없는 것은 공연 문화에도 나타난다. 언제부턴가 산사음악회는 찬불가, 대중가요, 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가 담긴 공연의 장에서 트로트 중심의 무대가 되어 버렸다. 오가는 길손과 지역민들이 자리했던 객석은 트로트 가수 팬클럽들이 차지했다. 지현 스님과 함께 산사음악회 문화를 이끌었던 이 대표는 이 같은 세태에 대해 “본질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청량사 산사음악회에는 (지금은 유명해진) 장사익, 한영애, 안치환 같은 당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공연하고 이를 지역민과 등산객, 참배객들이 즐겼죠. 지현 스님도 공연기획하는 팀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최근에 산사음악회를 가면 트로트 가수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다양성보다는 ‘누가 왔다던데’가 중요해진 것이죠. 이는 산사음악회의 본질과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늘은 좋은날’ 제작 비화를 이야기해줬다. 1996년 풍경소리 4집 제작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이 대표에게 연등축제에서 사용될 음악 제작을 의뢰했다. 월주 스님은 “연등축제에서 연등을 들고 걸어오는데 좀 신나고 활기찬 대중적인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제작된 것이 ‘오늘은 좋은날’이다.

“월주 스님께 인사드리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생각이 젊으셨어요. 노랫말이 무겁고 어려우면 누가 듣겠냐는 것이죠. 젊은 감각으로 노래를 제작해 달라면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날’이 세상에 나왔죠. 월주 스님도 지현 스님도 비슷하셨던 것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가 있으셨어요. 믿고 맡기신 것이죠.”

그래도 이어진다

풍경소리를 회향했지만, 이 대표의 본령인 ‘음악’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좋은 음악을 만들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예인’의 삶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당장 오는 9월 13일에는 대구에서 ‘덕신 스님 헌정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찬불음반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문 스님, 반영규 선생 등과 같은 앞서간 불교음악인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기리는 헌정 음악회가 없더군요. 당장 풍경소리 30주년을 맞아 단체를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하셨던 덕신 스님에게 헌정하는 음악회를 열려고 합니다. 한창 준비 중인데 무대 인원이 너무 늘어나서 걱정입니다.(웃음)”

인터뷰 말미, “내일의 찬불가는 누가 만들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한 단락 지으면, 또 누군가가 불교음악에 새살을 돋울 겁니다. 불교음악의 내일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27 선(禪)이란



▶한줄 요약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듯, 온갖 일들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선(禪)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 고요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의 명상]
선(禪)이란 따로이 고요한 세계가 아닙니다.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을 얻는 것이며,
마치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도 편히 잠을 자듯,
온갖 일에 부딪치면서도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선(禪)이란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즉 일하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함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으려는 데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괴롭고, 병이 나면 아파서 괴롭습니다. 늙고, 잠을 못 자고, 사랑하지 않으면 외로움과 두려움이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괴로움의 본질입니다.

명예, 재산,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도 결국 괴로움을 넘어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떼어놓으려 뛰어가는 것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조차도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총량은 동일합니다. 작은 즐거움에는 작은 괴로움이, 큰 행복에는 큰 불행이 따라옵니다. 다만 이들이 나타나는 시기와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업(業)이 윤회(輪廻)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듯, 파도가 낮고 높게 치듯 우리의 행과 불행, 생사(生死)와 고락(苦樂)도 순환합니다. 그 변화가 아무리 크고 무쌍(無雙)하더라도 바다가 바다인 채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 성품도 변함없습니다.

본래의 성품을 깨닫고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본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시시각각 오고 가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일 뿐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사와 고락이 동일하게 업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 마음을 고요히 쉬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듯, 온갖 일들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선(禪)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禪)의 수행을 위해서는 시시비비(是是非非)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인과(因果)임을 알고, 그저 그러려니 하며 여여(如如)함의 여유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좌선(坐禪)을 통해 시끄러운 마음을 쉬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와 염불, 보시와 참회, 정진을 병행하며 내공(內空)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과의 흐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게 합니다. 좌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성품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생사와 고락을 초월한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감정을 비우고 여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바람이 스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 어렵고
올라갈수록 내려오기 힘들어
생각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지고
감정이 격하면 편안함이 사라지네.

욕심이 많아지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만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며, 화를 내고, 때로는 싸움을 선택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복수의 마음까지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가족, 특히 자식을 향한 애정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의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현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라고, 욕심을 부려도 좋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고, 화를 내도 좋습니다.

변화무쌍해도 바다는 바다이듯
우리들의 본래 성품도 변함없어
좌선으로 감정 조절 훈련 필요
인과 흐름 받아들이는 마음 키워

싸움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즉시 잊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감정을 얹지 않고 그 순간 놓아버릴 수 있다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쿨하게 뒤끝이 없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욕심과 화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얽매이게 되고,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하게 됩니다.

만약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낸다면, 그에 따른 과보(果報)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과보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과보를 보고 화를 내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마치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인과(因果)가 따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며 내뱉는 말과 행동, 마음속에 품은 화는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탐진치(貪嗔痴), 즉 삼독심(三毒心)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고 괴롭게 만듭니다.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업을 쌓으며 삶의 괴로움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 놓음(방하착) 선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놓음 명상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감정을 흘려보내며,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놓음 명상을 통해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고 인과의 흐름을 믿는 마음은 더 이상 삶의 고통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늘 하루, 놓음 명상을 실천하며 내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보십시오. 마음의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와 평화를 찾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미래를 여는 세계적 불교성지 탄생에 함께해 주십시오.

크게 제도할 도량 거제도 제석산에 천연 와불이 수호하며 거북이가 알을 낳고 대붕이 내려앉는(대붕안착형) 영험한 명당에 더붐비전센터를 창건합니다.

세계 건축 명장이 초현대적 감성으로 불교 우주관을 녹여 남섬부주에서 9산 8해를 지나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구현했고,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붓다로드에 자화상의 도예 원불을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흰 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 제석천 위 허공에 뜬 불상, 바다 위에 떠 오른 해수관음보살상, 구품연지, 금강저, 종이로 만든 법당 기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창건불사 하십시오.

도예원불 동참으로도 창건 공덕주가 됩니다.
삼천 불자들의 소망을 모아 대작 불사를 시작합니다.
자손 대대로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를 누리게 될 위대한 불사에
불자님의 정성과 원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예원불 108만원(100일 기도축원)
해수관음보살 1080만원(1000일 기도축원)
계 좌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 의 010-5514-1002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더붐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영산대학교 동양상담학과 교수)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⑬ 화엄(華嚴) : 김춘수의 '꽃'



▶한줄 요약
시인은 단순한 하나의 몸짓도 이름을 불러주면 의미 있는 꽃으로 거듭난다고 노래했다. 몸짓이 아닌, 의미가 만나 서로 존중하며 사는 공간이 화장세계다.

하나의 몸짓에서 꽃으로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리 / 지워지지 않는 의미가 되리."

가수 박강성이 부른 노래 '장난감 병정'의 마지막 구절이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움직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장난감 병정에 비유한 노래다. 가수는 맺어지지 못한 인연이지만,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의미로 남고 싶은 바람을 노래에 담아 부르고 있다. 누군가에게 잊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참으로 짠하게 다가오는 곡이다.

어디 연인 사이에만 그러겠는가. 상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다. 언젠가 십여 년 만에 만난 어느 학인에게 누구 아니시냐고 물었더니, 내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걸 알고는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해 온 적이 있다. 반대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난감했던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곧 관심의 척도이자 의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이름이다. 학창 시절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기억이 있다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고 싶은 것은 그다음 문제다. 그만큼 이름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옆집에 사는 이웃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아파트라는 환경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인은 단순한 하나의 몸짓이 이름을 불러주면 의미가 있는 꽃으로 거듭난다고 노래했으니 말이다.

김춘수(金春洙, 1922~2004) 시인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만석꾼 집안이라 불릴 만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는 일본 니혼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시를 공부하게 된다. 그곳에서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를 비롯한 여러 시인을 만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지만, 일왕과 조선총독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다.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통영중학교와 마산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1945년에는 유치환, 윤이상 등과 함께 통영문화협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한다.

1948년 첫 시집인 〈구름과 장미〉를 출간하고, '산악', '모나리자에게', '꽃', '처용', '비에 젖은 달'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한다. 시인은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1958년에는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했으며, 1959년에는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김춘수는 시인과는 어울리지 않은 행보를 보인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인으로 활약한 것이다. 시인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일 것 같다.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인은 5공화국 시절 전두환을 찬양하는 헌정시를 썼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에게 '대여(大餘)'라는 호를 지어준 서정주 시인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다만 김춘수는 서정주와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한마디로 100%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처량한 몰골로 외톨이가 되어, 앉은 것도 선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쩔 줄 모르고 보낸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한다. 지우고 싶은 아픈 시절이겠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아픈 역사도 역사인 것을.

누가 뭐라 해도 김춘수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시가 바로 '꽃'이다. 학창 시절 이 시를 교과서에서 처음 접했을 때의 기분 좋은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자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내용이 인상적으로 다가온 시였다. 지적 전율이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지만, 매우 철학적인 시라고 느낀 것 같았다.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첫 시집 〈구름과 장미〉에 수록
교과서에 수록돼 널리 알려져
호명에 의미 있는 꽃으로 거듭나
존중하며 사는 공간이 화장세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모두가 꽃이다

불교에는 '꽃'을 연상시키는 사상이 있다. 불교 사상 가운데 가장 철학적이라 불리는 화엄(華嚴)이 그것이다. 화엄이란 글자 그대로 온갖 아름다운 꽃[華]으로 세상을 장엄[嚴]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온통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라.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화엄에서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실은 불성이 실현된 공간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를 '불성현기(佛性現起)', 줄여서 흔히 '성기(性起)'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파라다이스라는 것이다. 화엄은 세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다.

이곳에서는 장미나 모란처럼 예쁜 꽃이라 해서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에도 차별 대우는 없다. 그야말로 모두가 평등한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 화엄의 공간에서는 뱀을 징그럽다고 여기는 편견이나 선입견 또한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은 그저 망상에 불과하다. 마치 술에 취해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히면 별이 보이는 것과 같은 착각일 뿐이다. 술에서 깨어나면 별이 사라지는 것처럼, 망상 또한 그렇다는 뜻이다. 화엄의 시선에서 보면, 뱀이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징그럽다.

이러한 화엄 사상은 출신이나 학벌에 의해 서열이 매겨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의미로 다가온다. '흙수저'나 '금수저'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만큼 양극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불가능해진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신분, 성별, 피부색과 관계없이 우리가 모두 아름다운 꽃이라는 화엄의 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인은 이름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한 몸짓에서 의미 있는 '꽃'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는 매개이기 때문이다. 그저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한 몸짓이 이름을 불러 주자 내게 와서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꽃'이 되었다고 시인은 노래한다. 새롭고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나만이 지닌 빛깔과 향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처럼 이름은 나와 너를 의미 있는 관계로 맺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어쩌면 이름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알려진 것처럼, 부처님 당시 인도는 태어날 때부터 브라만과 귀족(크샤트리아), 평민, 천민이라는 4개의 계급으로 결정되는 사회였다. 그래서인지 브라만 출신의 부처님 제자에게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 어떻게 브라만이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크샤트리아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 주위에서 비난했던 것이다. 이를 안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태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신분이 결정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답하라고 하였다.

"나는 사문 석가의 아들이다."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와 같은 차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식[佛子]이라는 새롭고 의미 있는 이름, 즉 법명(法名)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므로 불성(佛性)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부처가 될 가능성이 아니라 앞서 말한 불성이 실현된 존재인 것이다. 그가 나에게 와서 부처라는 꽃이 된 것처럼, 나 역시 부처로서 존중 받는 세상, 화엄의 이상이자 우리가 꿈꾸는 불국토다.

불교대학이나 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법명을 부르자고 수업 시간에 자주 말하곤 한다. 법명을 부르면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불자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홍길동이가' 하는 식으로 말하면, 옆에서 듣기가 민망하다. 이럴 때 법명을 부르면 자연스레 '거사님, 보살님' 호칭이 뒤따를 테니, 존중하는 마음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다. 시인의 지적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꽃이다. 몸짓과 몸짓이 아니라 의미와 의미가 만나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공간이 바로 아름다운 화장세계(華藏世界)다.

화엄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를,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품고자 하는 사상이다.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과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이 시를 주목하고 화엄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이, 성별, 신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름' 있는 꽃이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39호 | 15 | 전면광고

중생의 마음은 본디 부처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않고 부처를 생각하면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부처를 볼 수 있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 《능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위치 : 경남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법당 : 30평 외
- 매가 : 15억 • 매가 : 30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매매가격 : 5억5천
- 대지 : 107평(354㎡) / 건평 : 150.2평
- 지하 : 24.4평 / 1층 : 67.4평 / 2층 : 58.3평 / 옥상
- 1층과 지하 전세줌 / 1층 화장실1
  2층 법당1 방2 주방 거실 화장실2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 땅 대지 86평 대웅전 목재 20평 삼존불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마당
  약사여래불 방3 화장실 3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137-3838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부지 2013㎡
- 법당 약40평, 요사채 약60평, 창고 약20평
- 산세 및 풍광 좋음
- 주차장 넓음
- 매매 : 6억 5천만원

010-3466-9991

사 찰 안 내

기도하며 한가하게
살기좋은 수행처

- 대지 85평 중 인법당 16평
- 조립식 요사채 12평
- 가격 : 3800만원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길 114-3

010-8987-4570

사 찰 안 내

'인연보시' 같이 동행할 인연 찾습니다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 267-28
- 사찰 규모 3600평, 목조/극락전 30평, 목조/산신각 요사채 80평, 7m 미륵입불, 미분양 부도탑 20기, 연못용왕당 찜질방 등
- 가액 : 10억원(상담후 50% 인수가능)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사찰
- 평수 : 18513㎡(5600평)
- 매매 : 17억

010-4646-2580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광대사
- 대지 1000평, 법당 15평 요사채 25평
- 명산 도량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7395-154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곳,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50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소재 대구 1시간 거리
- 법당, 주방, 방 2, 화장실 2
- 시설비 : 1000만원, 보증금 500/40

010-7942-9015

사찰(급)안내

- 밀양 전망이 아름다운 암자
- 246평 (법당, 약사여래, 산신각)
- 요사채 25평(방3개, 화장실2개, 거실, 공양간)
- 태양광 시설 등 비품 일체
- 스님 부재로 급매
- 가액 : 1억 2천만원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호원 감곡kt역 10분거리
- 대지 1100평 대웅전
- 60평 종각, 요사채3동, 휴게실 다도, 산신각
- 신비스런고 유명한 거북바위소원돌, 찜질방, 연못 12m해수관음보살, 대형용, 요양원 토목공사 완공

*상담 가능(월수금은 기도중 입니다)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가야산 아래 백운동 60평
-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공기가 매우청정한 토굴
- 거실, 방2, 화1 군불넣는 잘지어진 황토방1
- 가액 : 6900만원

010-9468-01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좌수영로 토곡사거리 도로 옆
- 31평 규모
- 법당, 주방, 친견실, 화장실, 방1개
- 시설비 : 700만원 (보증금 1500/50)

직통 010-5014-75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완강읍
- 대지 90평 건물,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5평
- 조용하고 기도정진 좋은 곳
- 은행, 병원, 마트 등 가까움
- 가액 : 5억원(절충 가능)

010-2458-6655

사 찰 안 내

- 전국 산중 사찰 중 개곡 있고, 숲이 많고, 터가 넓고, 도로좋은 곳
- 산중사찰 중 토지 넓은 사찰
- 수목장, 납골당 가능한 곳(경북)
- 도심 포교당 1억에서 3억
- 도심 사찰 중 15억 이내
- 사찰함께 운영할분(템플스테이 등)
- 전통사찰 중 문화재보유 사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충남·북
- 1억~2억 금액 암자(토굴)
- 2~3년 사찰임대 놓으실분 구함 2~3년 후 임대한 스님 구입확실

053-745-9999, 010-2512-77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2층 (법당 포함 35평)
- 도시가스 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 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416-1046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천안 생활권)
- 법당 30평/공양간 15평 요사채 20평
- 가액 : 2억 8천(융자5천포함)
- 대원사

010-5416-0850

사 찰 안 내

- 위 치 : 양산 시 동면 법기수원지 주변 508평 + 계곡100평
- 농장한가운데 물이 철철함/사찰 굿당 종중/재실 묘원 별장 예견 공원/철골하우스 30평/철골 휴게실 1-2층 30평/싱크대 2개/화장실 2개 잔디밭 50평/전기 수도 도로포장/주차장 있음/주인12년동안 정성들여 가꾼 농장이나 나이가 많아 매매 하고져함. 시설물 농기구등 모든것 포함
- 평당 70만원

010-7770-16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00평 / 임야 : 3600평
- 건물 : 대웅전55평 공양실35평 종무소10평 요사30평
- 천연 지하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7억원

010-6764-0034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액 : 3억 6천 만원(절충가능)

010-3596-00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동국대 에서 안강 방향 10분(차)
- 대지 : 250여평, 법당 30평, 정남향.
- 요사채 : 3동 100평, 텃밭100평 (국유지) ; 현재 10여종 작물재배 중 *2020년, 굴다리 제거됨*
- 특징 : 동국대 병원 10분/ 2차선에서 산 끝집 100m/ 버스 20분 간격 / 전기, 수도 : 전부 인입. 산속 청정수, 1년 내 마르지 않음 (가재); 서출 동녁수 형산강을 끼고 있어 연년 중 시원함. 도량내 200년 된 소나무. 사찰기운이 강함.
- 슈퍼 : 1km, 5km 내, 3개 • 매가: 3억 8천

010-8847-4610
근무 중이라 문자 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39호 | 16 | 전면광고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등의
악행을 짓지 않는 사람은 그 명예가 날로 더해간다.
마치 달이 보름달을 향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설선생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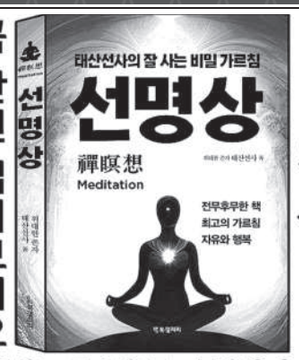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스님구함

행자, 처사님,
공양주 보살구함

(태고종)부산 만덕동
만덕사

010-3840-4355

천하제일 적중률!

손으로 짚어 안되는 것이 없는 **구단구궁법**교실

상 표 등 록 : 40-0863341
서비스표등록 : 41-0213393
저 작 권 등 록 : C-2011-003967

특허 2일 완성 학생모집

법화 종헌 정흥교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 불교연합회

불교 용품 경매 알림

품목 : 불상, 불경, 불기
불화용품, 불교관련 용품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장소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새동길 8

오리정휴게소 내 010-3717-403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서울 포교원 할 분

서울 목동사거리 2층 시장 옆
사찰 매매 겸 임대차 할분

공양주 부전 할 분 쓸 분

결혼할 분 서울 명동결혼
물새는곳 방수 겸 페인트 전문

010-5381-1419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2025년 7월 30일까지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❶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❷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❸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 상담 : 1688-9099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⑭ '이번 생도 잘 부탁해'(2023)

끊임없이 다른 삶 사는 변화가 윤회

〈옹고집전〉이란 고전소설이 있다.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마음 씀씀이가 인색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도술에 능통한 도사가 짚더미로 만든 가짜 옹고집에게 밀린 진짜 옹고집이 집에서 쫓겨나 고생하다가 잘못을 참회하고 새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못된 옹고집이 가족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대목이 무척 통쾌한데, 정작 저 도술을 부린 이가 스님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옹고집전〉의 하이라이트는 짚더미로 만든 가짜 옹고집과 진짜 옹고집 가운데 어느 쪽이 진짜인지를 가리는 대목이다. 누가 진짜인지 판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과 나만 아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겉모습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 해도 '기억'까지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의 주인공 반지음(배우 신혜선)은 19회차 인생을 살고 있다. 대체로 전생의 기억은 여덟 살에서 열두 살 사이에 갑자기 떠오르는 편이다.

17회차의 삶에서 반지음은 1956년생 서커스단 단원 김중호(배우 이재균)로 살다가 어린 조카 애경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18회차에는 부유한 집에서 1986년생 윤주원(배우 김시아)으로 태어났는데, 세 살 어린 엄마 친구의 아들 문서하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열두 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19회차 인생을 맞아서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자마자 서하가 살아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지음. 무작정 서하의 집을 찾아가 서하가 무사함을 확인하고는 '윤주원의 기억을 가진 반지음'으로서 문서하(배우 안보현)에게 서서히 다가간다.

18회차 인생에서는 서하가 주원보다 세 살 어린 동생이었지만 19회차 인생에서는 지음이 서하보다 한참 어릴 수밖에 없다. 이번 생에서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리던 어린 지음은 집을 도망쳐 나와 17회차 인생의 조카 애경(배우 차청화)에게 의지하며 인생을 '리셋'한다. 그리고는 전생의 능력치를 총동원해 '스타퀸' 만능 소녀로 유명세를 얻고 대학 조기 입학과 졸업으로 MI 모비티에 입사해 서하와 가까워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된 전전생의 조카 애경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지음의 모습이 마치 〈옹고집전〉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듯하다. 지음은 자신이 중호의 환생임을 입증하기 위해 애경만 알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한다. 열 살 남짓한 아이가 나타나 삼촌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애경은 자신의 기억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하는 아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전생의 동생 초원(배우 하윤경)에게 자신이 전생의 언니였음을 알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초원과 주원 둘만이 알고 있는 기억을 맞춰봄으로써 초원은 지음이 언니 주원의 환생임을 받아들인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겉모습인 육신이 아니라 영혼 또는 정신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윤회와 환생 소재로 한 드라마
육신·정신 뒤섞인 상태가 정체성
윤회한들 각각 삶이 내 삶 아니야

불교에서 사람을 설명하는 용어는 오온(五蘊)이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적인 부분[色], 감각 부분[受], 연상(聯想) 부분[想], 의지 부분[行], 인식 부분[識]의 다섯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덩어리를 굳이 나누자면 물질적인 부분, 즉 육신인 색(色)과 정신적인 부분인 수상행식(受想行識)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을 육신과 정신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워낙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오온이라는 설명도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온의 핵심은 '화합(和合)'이다. 다섯 가지 덩어리가 그저 찰흙 덩어리처럼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물에 녹인 것처럼 서로 완전히 섞여 낱낱을 구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육신과 정신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어느 한쪽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섞인 그 상태 그대로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이다.

반지음이 전생을 기억하는 이유는 첫 번째 생과 관련이 있다. 지음의 첫 번째 생은 신물(神物)인 무령(武靈)의 매듭이 될 천을 만드는 '수'였다. 수는 하나뿐인 혈육이자 몸이 약한 언니 '설'을 살리기 위해 신당의 무령을 훔쳐 도망갈 계획을 꾸몄지만, 신관 '천운'에게 들켜 그만 '설'이 목숨을 잃고 만다. '수'까지 죽이려는 '천운'을 '한야'가 막아 간신히 목숨을 건진 '수'는 결국 '천운'을 상대로 언니의 복수를 시도하다 '천운'의 군사들에게 첫 번째 생을 마감한다. 이때 "백년이고 천년이고 잊지 않고 다시 태어나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는 '수'의 다짐 때문에 천 년 동안 전생을 기억하는 삶을 이어온 것이다.

반지음의 첫 번째 생에서 만났던 인물들은 마지막 19회차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외모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언니인 '설'은 17회차의 동생 초원의 모습으로, '한야'는 문서하의 모습으로, 지음이 복수를 다짐했던 '천운'은 애경식당 아르바이트생 민기(배우 이채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식이다.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윤회와 환생을 소재로 한 흥미로운 드라마이지만, 한 가지 의문을 던진다. 내가 열아홉 번을 윤회한들 그 각각의 삶이 과연 나의 삶일까? 드라마처럼 아무리 기억이 유지된다고 해도 이름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며 경험치가 다르니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쉽게 내가 윤회한다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윤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는 있지만 윤회하는 자는 없다고 한다. 끊임없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변화 자체가 바로 윤회이다.

육신과 정신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니 한 가지만 더. '심신미약'이라는 법률용어가 있다. 이때 심신은 몸과 마음의 '심신(心身)'이 아니라 정신상태인 '심신(心神)'을 말한다. 한마디로 정신에 문제가 생겨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의사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행동을 책임질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처벌을 가볍게 한다는 것이다. 행위한 사람의 주인인 정신이 정상이 아니므로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하지만 불교의 오온의 시선으로 보면 온전한 정신의 상태나 온전하지 않은 정신의 상태나 모두 나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덩어리가 화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서든 내 행동은 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때는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반드시 처벌하면서, 술에 취했다고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수행 이끌어 번뇌 병 제거
근성 따른 법 중생 이롭게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㉗ 제6·7·8 륜(輪)의 주요 내용

부처님께서는 제6왕륜(王輪)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장보살이여, 대왕은 견고한 성곽과 촌락, 국경, 서울, 왕궁에 앵무새(첩보망) 등 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뒤에서야, 궁중에서 왕비와 권속, 궁녀들에게 둘러싸여 갖가지 오욕을 즐기고, 육근의 쾌락을 마음대로 누비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대왕은 이 6륜을 성취해 나라의 안락을 증진시키고 원수와 나쁜 벗의 항복을 받아 몸을 잘 보호하며 수명을 더욱 길게 하느니라."

이어 제6불륜(佛輪)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장보살이여, 여래도 모든 보살마하살 또는 성문들과 함께 성교(聖教)를 지키는 견고한 시설을 다 갖춘 뒤, 최초의 선정에 든다. 그리고 제4선, 또 무변허공지정(물질적 존재가 전혀 없는 무한의 공간적 경지)에 들어간다. … 마호라가, 포달라 등이 내가 일체 부처님이 행하는 선정에 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 삼보 또한 존중 공경하는데, 그것은 희유한 일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악을 부끄러워하며 깊은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이 인연으로 한 찰라 사이에 무량한 번뇌장, 업장, 법장이 다 소멸되고, 무량한 복과 슬기와 자량이 충만하여 생사를 떠나 열반으로 나아가며, 여래의 위없는 바른 법을 보호하고 지니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나는 제6륜을 성취하고 이로 말미암아 선정, 해탈, 등지(等持, 마음을 집중함), 등지(等至, 심신이 평등하고 안온한 상태)의 깊은 선정에 유희하며 … 사자후 하느니라."

제7왕륜: "지장보살이여, 저 대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 국경지대 순찰 시 방편을 다해 방비를 튼튼히 하고 경계 밖 나쁜 이들이 숨지 못하게 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며 즐거움을 받게 하느니라."

제7불륜: "지장보살이여, 여래도 이같이 부처의 눈으로 일체 유정과 개인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과 그들의 번뇌, 병과 행의 차별을 여실히 알고, 무량한 정진과 용맹, 방편의 힘을 일으키며, 또 선정을 닦는 묘한 약을 주어, 수행하게 하여 번뇌의 병을 제거하게 하느니라.

만일 유정이 부정관(不淨觀)을 닦아 번뇌의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그에게 부정관을 닦는 약을, 무량한 자비심(慈悲心)을 닦아 번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곧 무량한 자비심을 닦는 약을, 연기(緣起)를 닦아 번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곧 그에게 연기(緣起) 닦는 약을, 식념(息念)을 닦아 번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에게 식념을 닦는 약을 주느니라. 또 만일 유정이 해탈문을 닦아 번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해탈문을 닦는 약을 주고 정려(靜慮)를 닦아 번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에게 정려(靜慮)를 닦는 약을 주느니라. 무색정(無色定)을 닦아 번뇌의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그에게 무색정 닦는 약을, 수능가마의 삼매를 닦아 번뇌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수능가마의 삼매를 닦는 약을 주느니라.

여래가 저 유정들에게 약을 주는 까닭은 교화 받을 일체중생들로 하여금 원수인 사마(四魔)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 그들로 하여금 인천(人天)의 길을 등지고 나쁜 세계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여래의 최상의 법안(法眼)과 삼보의 종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법의 약을 주는 것이니라. … 중생들에게 갖가지 약을 주어 번뇌의 병을 고치게 하며 … 사자후 하느니라."

제8왕륜: "지장보살이여, 저 대왕은 전생의 종성(種姓)과 처음 태어났을 때 동자로서 놀던 일들을 기억한다. … 선왕이 따르던 법에 굳게 서서 나라를 수호하며 남의 나라를 침노하지 않느니라. 대왕은 이런 8륜을 성취하여 … 그 몸을 수호하고 수명을 더욱 길게 하느니라."

제8불륜: "지장보살이여, 여래도 대중의 모임에 있으면서 자타가 전생에 지낸 무량한 일들을 생각한다. 즉, 일생, 이생, 삼생 내지 무량한 백천생의 일들을 생각한다. 혹은 성겁(成劫) 또는 괴겁(壞劫), 혹은 무량한 성괴겁을 생각한다. 과거 어떤 곳에 살았고, 성과 이름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종성과 종류였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고통과 즐거움을 받았으며, 수명은 어떠했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수명이 다해서는 저기서 죽어 여기서 났고, 여기에서 죽어 저곳에서 난 것을 생각한다. 전생의 이런 무량무변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중생들의 근성(根性)의 차별에 따라 바른 법을 세워 그들을 이롭게 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나는 이러한 제8륜을 성취하고 무량한 유정들을 안락하게 하며 … 불륜(佛輪)을 굴리며 사자후 하느니라."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록시 석결명차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 리 통 증
무 릎 통 증
어 깨 / 목 통 증
손 목 / 발 목 통 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⑭ 의빈 권씨의 불사



▶한줄 요약
세종은 의빈 권씨를 비롯한 당대의 왕실 여성들이 불교를 신앙하고 불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다. 억불을 표방했으나 숭불을 지속했던 조선 전기 궁중불교의 내밀한 모습은 여러 기록에서 살필 수 있다.

금하지 못한 왕실 여성의 '불심'

〈佛心〉

"나라에서 행하는 불사는 내가 이미 파(罷)하였으나, 궁중의 부녀들이 그 아들의 수(壽)를 연장하기를 바라서, 사재(私財)를 써서 혹은 예참(禮懺)을 베풀고 혹은 수륙재를 행하니, 금하고자 하나 금하지 못한다."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1월 17일 정축).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太宗, 1367~1422, 재위 1400~1418)은 시독(侍讀, 경연에서 경서를 읽고 강론하는 역할을 담당한 정5품 관직) 김과(金科)에게 위와 같이 고충을 피력했다. 태종 즉위 원년, 즉 1401년 1월의 일이니 조선이 건국한 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불교를 강력히 통제하려 했으나 개인적인 발원을 위해, 때로는 왕실의 안녕을 위해 불사(佛事)를 거행한 여성들을 차마 막지 못했던 임금의 고뇌를 여기서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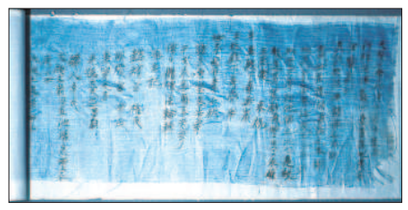
보령 금강암 석불좌상, 조선 1412년, 높이 183.7㎝, 보령 금강암,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사진=국가유산청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조선 1458년, 높이 72.0㎝, 영주 흑석사, 국보. 사진=필자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에서 발견된 '정암산 법천사 당주 미타삼존 원성제연 보권문'의 세부, 조선 1457년, 지본묵서, 31.7×15.9㎝, 영주 흑석사, 국보. 사진=필자



'아미타삼존불 복장기', 조선 1458년, 견본 및 지본묵서, 21.0×381.0㎝, 영주 흑석사, 국보.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나라님도 막지 못한 불심

사재를 사용해 예참을 베풀고 수륙재를 행하며 때로는 불상과 불화 조성을 발원했던 궁중의 부녀들 중에는 태종의 후궁들이 있었다. 그중 의빈 권씨(懿嬪 權氏, 1384~1468)는 이 시기 왕실 여성들의 불교 신앙과 불사를 대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의빈 권씨는 1402년(태종 2)에 태종이 후궁 제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후 처음으로 맞이한 최초의 간택 후궁이다. 그녀는 1402년(태종 2) 4월 입궁한 지 한 달여 만에 정의 궁주(貞懿宮主)로 봉해졌고, 1422년(세종 4) 2월에는 의빈으로 책봉됐다. 태종과의 사이에서 정혜 옹주(貞惠翁主, ?~1424)로 봉해진 딸을 하나 두었다.

1422년(세종 4) 5월 10일 태종이 승하하자, 의빈 권씨는 신빈 신씨(信嬪辛氏, 1377~1435)와 함께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됐다. 이는 세종의 허락도 없이 벌어진 일이기에 신료들의 비판을 받았다. 태종의 후궁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머리를 깎고 염불하는 기구를 준비해 아침저녁으로 불법을 행했다. 태종이 억불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그의 후궁들은 부처의 힘을 빌려 선왕의 명복을 빈 것이다. 이들의 불사는 임금인 세종이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1424년(세종 6)에는 하나뿐인 딸 정혜 옹주가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의빈 권씨는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 이유(錦城大君 李瑜, 1426~1457)를 맡아 길렀다.

의빈 권씨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수행자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1441년(세종 23) 정인지(鄭麟趾, 1396~1478)가 불법을 숭상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며 세종에게 올린 상소에 그녀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에 의하면, 의빈 권씨는 구(丘)씨 성의 비구니에게 귀의해 태종이 붕어한 직후 출가한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궁중에 비구니들이 왕래해 설법하고, 왕실 여성을 출가로 이끌 만큼 활약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정인지는 상소에서 의빈 권씨가 옛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궁중의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세종에게 청했다. 그러나 세종은 "나는 이미 양(梁) 무제(武帝)가 되었다"며 이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억불을 요구하는 신료들의 청을 윤허하지 않았다. 즉, 세종은 숭불 정책을 펼쳐 '황제 보살'이라고까지 불렸던 양 무제로 자처하면서까지 숭불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이 같은 국왕의 적극적인 비호는 의빈 권씨를 비롯한 당대의 왕실 여성들이 불교를 신앙하고 불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는 세종이 승하하던 날 저녁 10여 명의 후궁들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는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각궁의 자수(刺繡)에 능한 사람을 내전(內殿)에 모아서 부처를 수놓게 하고, 밖에서 공장(工匠)을 모아서 불상(佛像)을 만들게 하며, 스님들로 하여금 그 일을 주관하게 했다. 억불을 표방했으나 숭불을 지속했던 조선 전기 궁중불교의 내밀한 모습이다. 이 시기 불교미술이 융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왕의 묵인과 왕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앙이 있었다.

의빈 권씨 왕실 불교 신앙 대표 인물
태종 승하에 신빈 신씨와 비구니 돼
당시 궁중에 비구니 왕래 활약 기록
세종의 비호로 왕실 여성 불사 참여

개인과 왕실의 안녕을 위하여

의빈 권씨가 개인적으로 거행한 초기의 불사로 충청남도 보령 금강암(金剛庵) 미륵전에 봉안된 석불좌상이 있다. 불상과 함께 비편(碑片)이 전해지고 있어 금강암의 중건과 불상의 조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비문에 의하면, 1412년(태종 12) 의빈 권씨는 무학 대사의 제자인 영암(玲岩) 비구의 청에 응해 권홍(權弘, 1360~1446)과 옹주 이씨와 함께 보령 금강암의 중건을 후원했고, 이때 질 좋은 청석(靑石)으로 미륵상을 조성하게 했다. 권홍은 곧 의빈 권씨의 아버지이며, 옹주 이씨는 아직 작호를 받지 못한 어린 나이의 정혜 옹주로 생각된다.

비문에 '원당주(願堂主)'로 이름을 올린 데에서 알 수 있듯, 금강암은 곧 그녀가 피로 이어진 친정 가족들과 딸 정혜 옹주를 위해 기도를 올리는 사적인 차원의 원당이었다. 입궁한 지 10년이 되던 해, 그녀는 무엇을 빌었던 것일까. 슬하에 딸 하나만 두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궁내에서 더 확고한 지위를 확립할 수 있는 왕자의 출산을 빌었을 가능성이 크다.

보령 금강암 석불좌상은 상대석과 하대석에 연판문이 새겨진 타원형 삼단대좌 위에 안치돼 있다. 머리 위에는 원형의 보개(寶蓋)를 쓰고 있으며, 그 위에는 별도의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보주가 올려져 있다. 긴 타원형의 얼굴, 통통한 볼과 작은 입에서 조선 전기 불상의 표현 양식을 엿볼 수 있다. 복부 앞에 포갠 양손에는 용화(龍華)로 생각되는 꽃봉오리를 받쳐 들었다. 이 같은 수인이나 비편에 언급된 '미륵'을 종합할 때, 보령 금강암 석불좌상은 미륵불로 추정된다.

의빈 권씨가 이끈 가장 주요한 불사로 1458년(세조 4) 완성된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들 수 있다. 1992년 불상 안에서 다양한 복장물과 복장 기록이 발견돼 불상의 조성 경위, 시주자, 조성 시기 등이 명확히 밝혀졌다.

복장에서는 1457년(세조 3) 2월 작성된 '정암산 법천사 당주 미타삼존 원성제연 보권문(井巖山法泉寺堂主彌陀三尊願成諸緣普勸文, 이하 보권문)'과 이듬해인 1458년(세조 4) 10월 작성된 '아미타삼존불 복장기(이하 복장기)', 모두 2점의 발원문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이 불상이 본래는 정암산 복천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의 삼존 중 본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의빈궁 권씨라는 이름은 보권문에 첫 번째로 등장한다. 그 아래로 명빈궁 김씨, 유인 신씨(孺人 辛氏),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호(李)의 이름이 열거돼 있다. 마찬가지로 복장기에도 의빈궁 권씨가 첫 번째 시주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아래로 명빈궁 김씨, 효령 대군, 광덕대부 연창위(光德大夫 延昌尉), 유인 신씨, 지용천(池湧泉), 이호를 비롯한 많은 동참 시주자들의 이름이 이어진다.

발원문에 이름이 열거된 순서를 고려할 때, 의빈 권씨는 이 불사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판단된다. 이 외에 발원문 앞쪽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태종대에서 세조대에 이르는 시기에 활약한 대표적인 왕실의 불자들이다. 예컨대, 명빈 김씨는 의빈 권씨와 마찬가지로 간택을 통해 입궁한 태종의 후궁이자 독실한 불자였다.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 대군은 당대 종실의 최고 어른이었고, 수많은 불사를 이끌며 조선 전기 불교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연창위 안맹담(安孟聃, 1415~1462)은 세종의 둘째 딸 정의 공주(貞懿公主, 1415~1477)와 혼인했으며, 부인과 함께 불교 신앙을 실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법천사에 아미타삼존불 조성 불사가 진행됐던 1457년 2월에서 1458년 10월에 걸친 시간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기였다. 1455년 6월 세조가 즉위하며 단종(端宗, 1441~1457)이 폐위됐고, 실패로 돌아간 1456년의 단종 복위 운동은 많은 신료들과 왕실 구성원들이 숙청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희생된 이들 중에는 의빈 권씨가 양육했던 금성 대군(錦城大君, 1426~1457)과 그녀가 말년에 몸을 의탁했던 혜빈 양씨(惠嬪 梁氏, ?~1455)도 있었다.

혜빈 양씨는 어머니를 일찍 여읜 단종과 경혜 공주를 맡아 보살폈고, 세종의 사후에는 비구니가 되어 선왕의 명복을 빌었다. 이 같은 혜빈 양씨의 삶의 경로는 역시 손자뻘인 금성 대군을 양육하고, 태종의 사후에 비구니가 되어 불사에 매진했던 의빈 권씨와도 공통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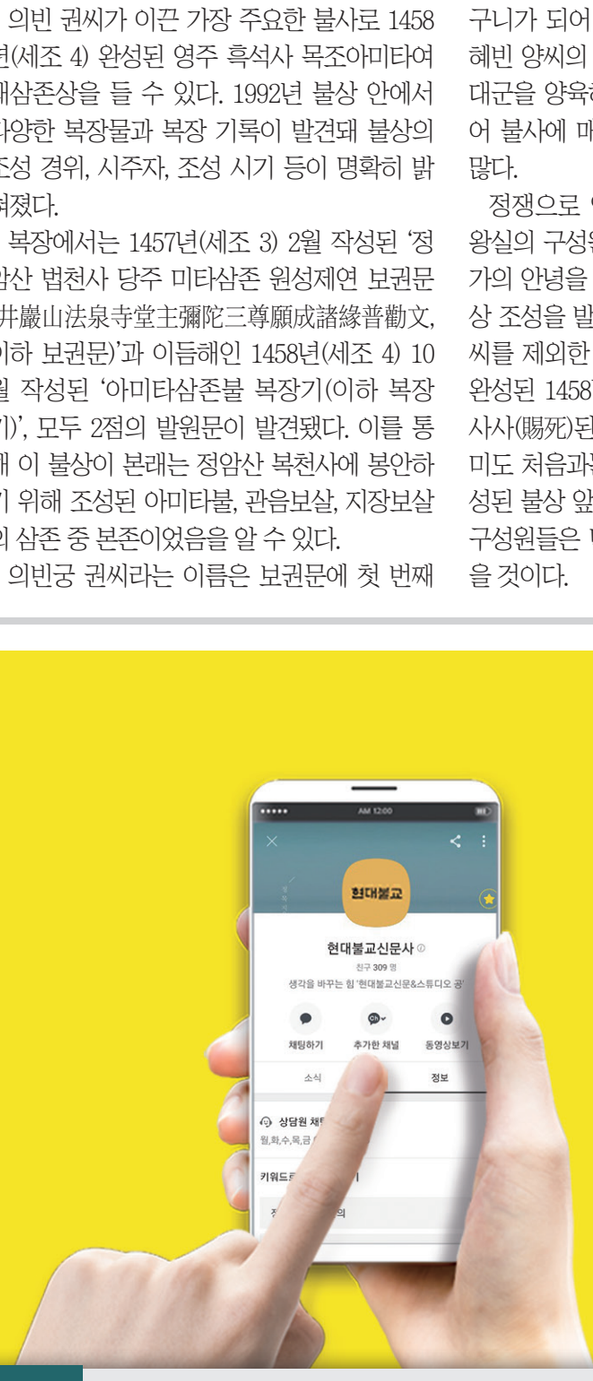
정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맞닥뜨렸던 왕실의 구성원들은 이 불사를 통해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빌었을 것이다. 비록 불상 조성을 발원한 시점인 1457년에는 혜빈 양씨를 제외한 이들은 생존해 있었으나 불상이 완성된 1458년에는 금성 대군도 단종도 이미 사사(賜死)된 이후였다. 이에 따라 발원의 의미도 처음과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완성된 불상 앞에서, 의빈 권씨를 비롯한 왕실의 구성원들은 먼저 간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을 것이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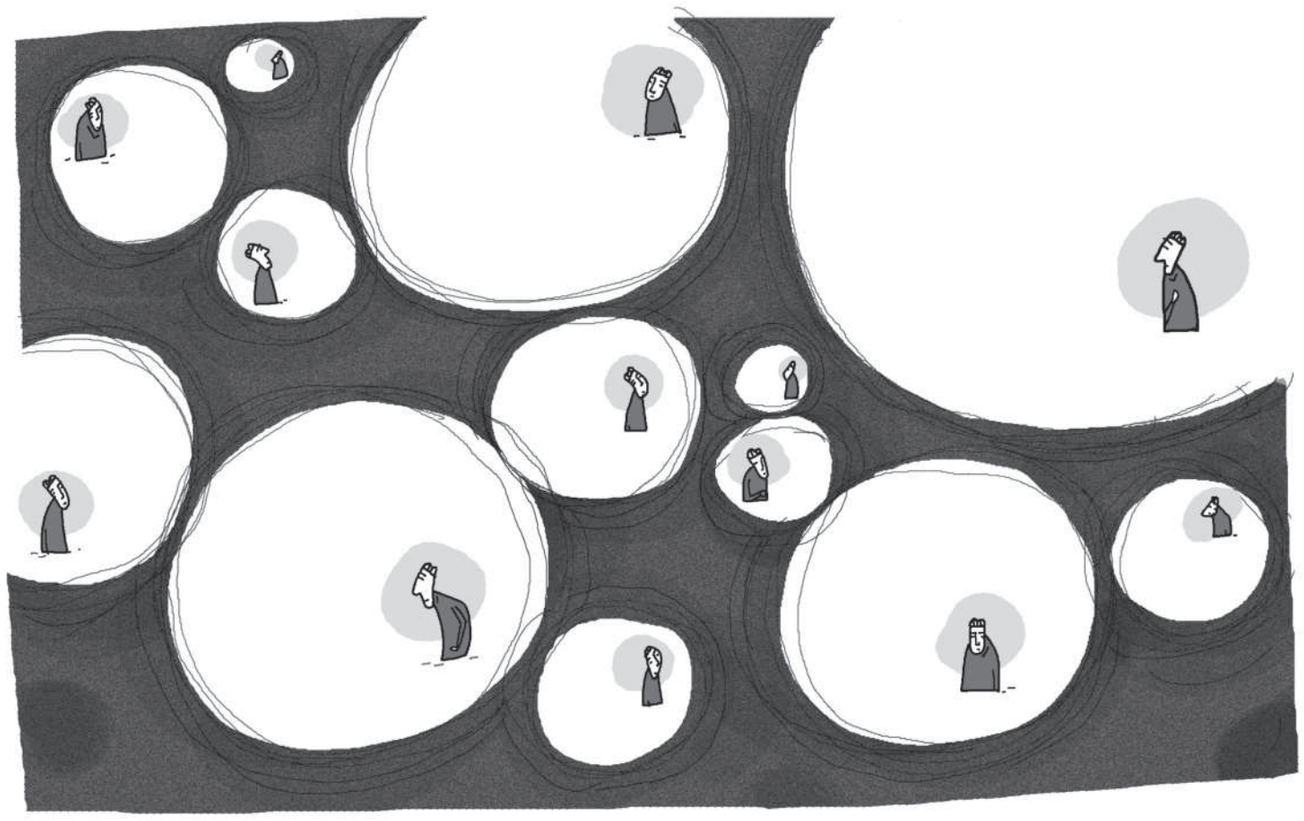

대행 스님

마음의 슬기로운 그 묘법이 있는데 왜 바깥으로 끄달리는가

생활 선의 이치에 대해

질문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가끔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 절을 찾아가곤 했었는데 불교방송에서 대행 스님 법문을 듣고 제대로 마음 도리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스님께서는 생활 속의 참선 수행에 대해 설하셨는데 저와 같은 중생들도 그 생활 선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나한테서 나온 거 나한테다 다시 놓는다는 거밖에는. 그것만 알면 됩니다. 믿고 거기서 한다는 것만 알면, 이날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했고 내가 모든 것을 상대를 맺어 놓고 내가 거기에서 들이고 내고, 오관을 통해서 내가 들이고 내고 한 거지 누가 들이고 내 주는 게 없단 얘깁니다. 그럼 모든 것은 자기로서부터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한 거지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자기한테 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인데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중생이 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마음 있기 이전, 마음 내기 이전은 부첩니다, 바로. 그렇다면 구태여 중생이다 부처다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포함해서 삼합이 그, 삼위일체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우리 이 지구도 그렇지만 우주의 섭류도 그 은하계로 인해서 그 은하계의 그 샛별 뒷면의 그 삼각으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컴퍼스 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러면 하나는 여기 짚었습니다. 하나는 옆으로 돕니다. 하나는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그어야 둥글어지죠? 그런데 하나는 위, 이렇게 있거든요, 맞춰서. 하나는 위 맞춰서 있고 하나는 아래로 맞춰서 있고 하나는 중간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깐 우리는 이 땅으로 이렇게 컴퍼스를 똥그랗게 그으려면,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땅 이것도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이 우주의 섭류라는 것이 한 개의 덩어리 속에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지구가 태양을 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삼각원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 몸뚱이가 살아나가는 것도 생명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그게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움죽거리고 살고 있는 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눈 깜빡거리고. 숨 쉬는 것은 자도 숨을 쉬고 깨서 이렇게 다녀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이렇게 사시면서 숨을 한 번도, 자면서도 깨서도 언제나 숨 안 쉬어 본 일이 없는데, 그게 참선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고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자고 깨는 것뿐이에요. 항상 숨은 쉬고 있어요, 같이. 우주의 그 모든 일체 만물과 더불어 만생이 그냥 호흡을 같이 하면서 돌아갑니다. 잠잔다고 해서 숨 안 쉬고 자는 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숨 쉼과 마찬가지로 진리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거든요. 그 숨 쉬는 고놈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이 근원으로 하여금 내가 숨을 쉬고 이러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우리 생활이 바로 이렇게 움죽거리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모두가 그게 포함해서 원형을 이룬다 이겁니다. 그럼 과거도 원형 속에 있는 거고, 미래 사후에도 바로 원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공 속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거 미래 현재가 바로 이 공 속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생각을 크게, 넓게, 걸리지 않게 한다면, '모든 것을 거기서 나온 거 거기다 다시 놓자. 놓고 믿자. 그리고 물러서지 말자.'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 공한 진리에 내가 모든 탐욕과 모든 창살 없는 감옥과 모든 그 애착과 모든 게 몽탕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끄달리지 않게 되자 나는 훨훨 마음의 창살을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너무도 이 우주의 섭류와 이런 인간의 살림살이, 모든 게 적합하게 공해서 돌아가는 거를 진실로 알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한생각이라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도 만약에 '아, 저 사람을 구해 줘야지.' 하는 생각이 무뜩 났다면 그것도 여기서 생각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몽탕 들리는 겁니다, 몽탕! 그 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하게, 내가 아픈 사람을 불쌍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보이지 않는 약이 글로 갈 것이고, 또 가난해서 불쌍하게 생각을 해 줬다면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바로 그 가난을, 자기가 그 업보를 면해 주니까 바로 가난함을 없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으로 하는 그 무주상 보시! 그 마음으로 한생각 냈기 때문에 한 생각이 거기에 융합이 되고 통틀어 그 힘이 한데 가해지게 되자 그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실험을 통해서 지켜보세요. 실험해 보시고 체험하고 지켜보고 또 하고 이렇게…. 차 운전을 배웠는데 만약에 양면에 그 심봉이 끼워지지 않았다면 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운전을 배웠어도 한번 해 보고, 내가 실천을 해 보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크게 만들고, 그걸 자꾸 해 봐서 경험이 돼야 자기가 늠름해지고 그거를 잡아도 떨리지 않지, 그걸 안 해 보면 떨리고 영 안 해집니다. 겁나서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숙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내가 항상 참선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숨이 끊어진 사이는 없으니까. 그 숨 쉬고 있는 것이 진리요, 길이요, 바로 부처님 법이요. 내가 만약에 이 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숨은 쉬고 있는 거니까요. 그건 절대예요. 몸이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비유한 건데 숨 쉬는 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데 잠을 자도 그냥 몸만 자고,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 같은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너의 생명의 근본은 그대로 영원히 살아 있는데 네 몸만 없어졌다가 다시 모습을 갈아 가지고 다시 나올 뿐이지 죽고 사는 건 없다. 본래 살아났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괴롭게 살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사세요

☞ 19면에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생활하는 데서 자기가 차를 타고 오고 가고,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쩌든지 자기가 한번 '아, 저건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돼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분야에 따라서. 그런다면 거기에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관을 하면…

질문 저는 몸이 많이 아파도 관을 하면 아픔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몇 번 체험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관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간절히 관하지 않은 탓일까요?

답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러니저러니, "나는 주인공을 찾는데도 이렇게 안 됩니다.", "주인공을 찾았더니 잘되다가 또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한 발짝 떼어 놓는 것만 알았지 한 발짝 또 놓고 드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한 발짝을 들었으면 한 발짝은 놓고 한 발짝 들었으면 한 발짝 놓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드는 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놓는 것도 알아야, 들고 놓고 들고 놓고 하는 작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찾으니까 어느 만큼 되더니 안 되더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알아야지 전진하기만 하면 빠져 죽죠? 때에 따라서는 전진하기만 하면 구덩이에 빠질 텐데 그때는 물러서야 빠져 죽지 않죠? 그러니 드는 것도 법, 들지 않는 것도 법.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니라." 한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도 법이라고 했느냐? 구덩이에 빠지겠으니까 빠질 일은 물러서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물러서서 다시 굴려서 놓으면 빠지지 않을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지혜롭게 잘 굴릴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몸만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천차만별로 아픔을 가지고 가는데 바로 그 아픔이라는 재료가 지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 길에 들어선 걸 뜻합니다. 그냥 맨손으로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들어선 겁니다. 그 재료가 아니면은 이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살지.' 하는 마음이면 이 길을 들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모든 것은 공했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얘길 하지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그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기에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습니까? 네? 먼지 앉을 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이 났다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겼다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당했다, 내가 가졌다, 내가 병났다, 모두가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고 했죠. 여러분이 그걸 짐작하시죠? 고정됨이 없이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하고 만나고 먹고, 고정됨이 없이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 시 반시도 그냥 고정되게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고 부서지고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가 아니라 전체 포함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런 것이 마음에 따라서 부딪치게 되고, 그 업식으로 인해서,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서 나한테 자꾸 연관이 되는 거니까 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내 몸속에 들어서 자꾸 그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업식이라고 하고 업보라고 하고 유전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다, '아픔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긴 거다. 업보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고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를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게도 준 것이다. 이끌어 주는 재료가 주어진 거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나는 관찰하고 거기다가, 내 마음의 주인한테다 맡겨 놓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냥 틀고 앉아서 '이게 뭣고?'라든가, 의정을 강제로 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다면은 그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일체 만법의 근원이며 그 근본을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그냥 "나는 주인공을 찾았는데도 이렇습니다." 하지 말고,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없는 것을 찾는 것이라야 이게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즉 암흑 속에서 밝음이 불끈 솟아서 불이 일어나면 모두가 밝게 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로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 병원을 가 봐야 옳을까, 여길 가 봐야 옳을까 저길 가 봐야 옳을까 이러지 마시고, 내 중심에서 '이거는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한다면 그대로 가는 것도 법이고, '병원엘 안 가도 이 한마음 속에 이 모든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 주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대로 거기다 놓고 실험을 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내 속에 들어 있는 의식의 그 마음들과. 여러분이 따지고 보면 하나가 아니죠? 이 속에 든 수십억의 그 모습들이 다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해 주는 바람에 여러분이 걸어 다니고 말도 하고 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러 오더라도 나에게 말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내 이 마음에다, 모두 한마음에다 넣고 '저 마음도 더불어 같이 한마음인데 어찌 스님의 마음인들 이 속에 아니 계시랴. 일체 만법이, 또는 만인의 마음이, 또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다, 내가 아파서 응해 달라고 하는데 어찌 응하지 않으랴.' 그렇게 믿고 마음으로 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면 모두가 응신이 돼서 약사가 돼 가지고 여러분의 병을, 몸에 들어 있는 여러 의식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 돼서 고쳐 주시고, 어떠한 애로가 있다면 관세음이 돼 주시고 명이 짧다면 칠성이 돼 주시고, 응신으로 찰나에 드셨다 나시고 드셨다 나시고, 그리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한다면, 그래서 좋은 데로 가게 해 달라고 이렇게 정성을 지극하게 한다면 바로 지장이 돼서 여러분의 그 의식과 더불어 한데 합쳐서 그 지옥문을 다 허물어뜨리고 나가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 이겁니다.

> 무조건 당신을 믿고 당신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 모든 거를 그저 용도에 따라 오는 대로 너만이 해결 할 수 있다는 믿음,
> 물러서지 않는 마음,
> 그거라면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명료한 마음의 슬기로운 그 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바깥으로 그렇게 끄달리고 그런다면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며 어떻게 모든 것에서, 그 암흑 속에서 벗어나서 이 태양을 다 보고 행하시렵니까?

너무 힘든 인연을 만났는데

질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 봤지만 크게 마음 일으키는 인연이 없었는데 요즘은 어떤 상대로 인해서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나쁜 사람은 처음 겪어 봅니다. 마음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더니 공부 인연인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요?

답변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전력은 있는데 이 가설만 만들어 놓고 전력이 없으면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세상만사가 전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다 가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을 켜는데 그쪽에 어떻게 불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겁니다, 나하고 벌써 근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주인공에 탁 맡겨 놓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 봐요. 그리고 만나걸랑 부드럽게 말해 줘요. 뭐,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삽니까? 모두 가지고 갈 건가요? 내 몸뚱이도 버릴 텐데 뭐 가지고 갈 게 있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그래야만 합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걸, 재산을 하늘땅만큼 가졌다 하더라도 내 이 진실한 마음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주인공,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주인공에 다 이렇게 맡겨 놓고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저 규합돼서 얼굴 붉히지 않고 살게 해 주는 것도 너 아냐? 이 영원한 친구야!' 이렇게, '한마음 친구야!' 이래도 좋아요.

이 공부 하는 사람은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선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이 되지.' 이런 생각조차도 그냥 다 놓으세요. 행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그 만 가지, 자기 나무에서 익은 실과가, 한 실과가 만 가지 맛을 낼 때 그 즐거움이란 말로 못 해서 하늘을 보고 한나절을 웃고 땅을 보고 한나절 울었대요. 어때요? 그래서 앞뒤 터진 대피리 소리는 우주 법계를 두루 하더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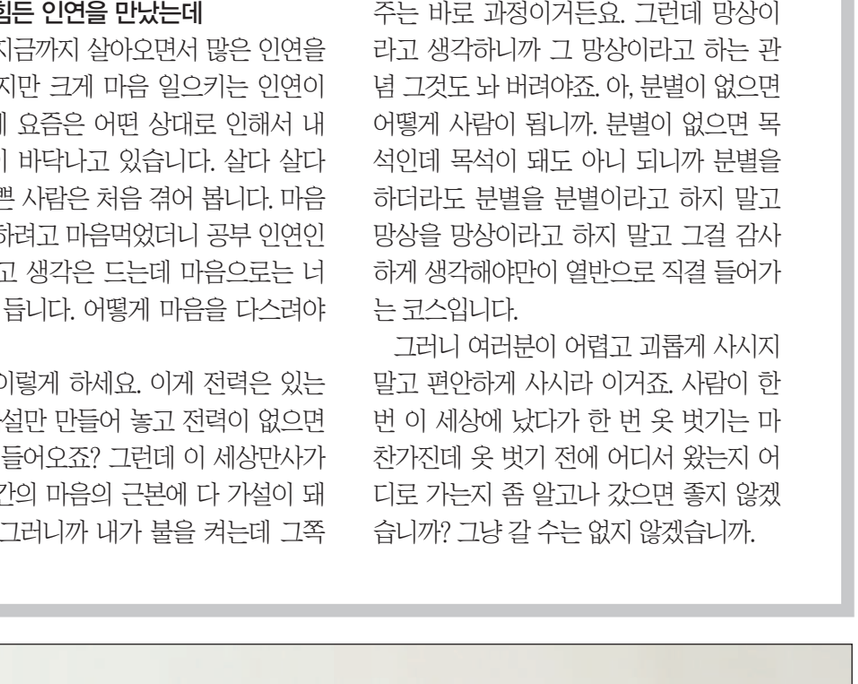
좀 그렇게 무조건 당신을 믿고 당신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모든 거를 그저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거라면 공부할 수 있겠죠.

좌선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고, 망상이라는 것도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참나를 발견하게 이끌어 주는 바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망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망상이라고 하는 관념 그것도 놔 버려야죠. 아,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분별이 없으면 목석인데 목석이 돼도 아니 되니까 분별을 하더라도 분별을 분별이라고 하지 말고 망상을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만이 열반으로 직결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고 괴롭게 사시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라 이거죠.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났다가 한 번 옷 벗기는 마찬가진데 옷 벗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좀 알고나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완벽이라는 외줄 위 아이와 함께해 주세요”

㊷ 불가촉천민 니디를 바꾸신 부처님, 부모 교육 ‘자존감’ (7)

완벽하지 않으면 자격 없는 존재처럼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 겉으로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완벽해야만 가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잣대가 자리 잡고 있다. 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나 성적도 부족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란 불안이 자라난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실패하고 있는 걸까?

실패라기보다 애초에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잣대는 너무 높고 완벽해서 현실에서는 닿을 수 없다. 이들이 말하는 ‘성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다. 다가가면 멀어지고 닿는 순간 사라진다. 그래서 아이에게 실패는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정된 결말처럼 느껴진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감정만 남고, 매번 스스로에게 낙제를 선언하게 된다. 바로 이런 마음의 구조가 아이를 ‘예정된 실패자’로 만들어 버린다.

상담실에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예슬이(가명)는 성적도 좋고 예의도 바르며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부모는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교사도 “정말 모범생이에요”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이는 심리검사 중 연필을 꼭 쥔 채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빨개졌다. 칭찬도 부담이라고 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할 것 같아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라는 외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었다.

완벽주의 아이들은 작은 실수에도 쉽게 무너진다. 그림을 여러 번 지우고 다시 그리거나 숙제를 끝없이 고치며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완성된 과제를 “아직 덜 됐어요”라며 숨기기도 한다. 시험지를 제출하고도 “틀렸을지도 몰라요”라고 불안해하고, 틀린 문제를 보고는 종이를 찢어버리기도 한다. 칭찬을 들어도 “운이 좋았어요”라며 스스로를 낮춘다.

어른은 실패와 자기를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다.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난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아이는 아직 자기 개념이 자라나는 중이며, 실수와 자기를 쉽게 동일시한다. 그래서 작은 실패가 존재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핵심은 세 가지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심리적 공감’, 결과가 아닌 과정을 지지하는 ‘부모의 언어 변화’, 그리고 잘했을 때뿐 아니라 흔들릴 때도 곁에 있어 주는 ‘존재적 수용’이다.

이 감각은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 아이가 틀린 문제나 어긋난 하루를 만났을 때 “왜 그랬어?” 대신 “그땐 어떤 마음이었어?”라고 물어보자. 그런 다음 함께 ‘실수 노트’를 만들어, 그날의 감정과 스스로를 다독이는 문장을 적어 본다. “3번 문제 틀림. 속상했지만 끝까지 풀었음. 다음엔 더 침착하게 해보자.” 실수를 부끄러움이 아닌 살아낸 순간으로 전환하는 도구다.

칭찬도 부담 되는 완벽주의 아이 속마음
결과보다 존재 지지하는 어른 역할 중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실수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일이다. 반찬을 태웠을 때 “오늘은 좀 엉망이야. 그래도 이대로 괜찮지?”라고 웃으며 말해보자. 아이는 실수한 어른도 평온하게 살아간다는 모습을 통해 실수해도 괜찮은 존재라는 메시지를 배운다.

결과보다 ‘시도’에 반응하는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을 살리는 열쇠가 된다. 아이가 발표를 망설이다 손을 든 순간, “맞았는지보다 그 마음이 정말 멋졌어”라고 말해주자. 여기에 ‘감정 스티커’를 붙이며 “오늘의 번개: 떨렸지만 끝까지 해낸 나”와 같은 기록을 남기면, 아이는 자신을 평가가 아닌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직접 느끼는 경험으로 배워야 한다. 아이들이 외줄 위를 걷는 듯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옆을 함께 걸어주는 어른이다. 흔들릴 때, 틀렸을 때도 “네가 있어 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 그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아이의 내면 대화를 바꾸고 결국 아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

똥통을 들고 다니며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 여겼던 니디. 실수 하나에 온몸을 웅크리던 그의 모습은 사실 많은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자리하고 있다. 내성적인 아이는 니디처럼 눈에 띄지 않으려 숨고 충동적인 아이는 수치감을 감당하지 못해 폭발하며, 불안이 높은 아이는 자신과 다른 세상을 예측하지 못해 두려워하고, 완벽주의 아이는 실수 하나에 모든 자격을 잃은 듯 무너진다. 겉모습은 달라도 그 안엔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라는 같은 질문이 있다.

부처님은 똥물이 튄 니디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눈을 마주했고, 온몸을 웅크린 니디를 일으켜 세웠다. “그런 너도 괜찮다”라는 말 없는 수용이 니디를 바꾸었다. 자존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실수해도 불완전해도 여전히 괜찮은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그 경험을 아이 곁에서 만들어 주는 어른 한 사람이 있다면, 아이는 언젠가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대로의 나여도.”

*현대불교신문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㊸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중·노년 여성에 흔한 관절 통증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가장 흔한 관절염으로 노인들이 호소하는 관절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노령화와 비만율의 증가에 따라 골관절염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 골관절염이 가져오는 경제적·사회적 손실 또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관절염의 정의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일명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골관절염의 유병률은 나이와 비례해 증가하는데, 60세 이상에서 증가합니다. 중년과 노년에서는 여성에게서 훨씬 흔하게 나타나며, 특히 손가락 관절의 골관절염과 증상이 있는 무릎골관절염은 더욱 여성에게서 흔합니다.

골관절염은 손가락, 무릎, 목, 허리 부위에서 흔하며 손목, 팔꿈치, 발목은 잘 침범하지 않습니다. 골관절염은 방사선 소견에서 관절강이 좁아지고 연골의 소실과 골극이 관찰됩니다. 골관절염은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통증이 있으면서 방사선 소견상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위험인자

골관절염의 주요 위험인자는 나이, 여성, 비만, 관절 외상, 직업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연령입니다. 45세 이하 여성은 2%만이 골관절염을 갖고 있지만, 45세부터 64세 사이에서는 30%이고 65세 이상에서는 68%를 차지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연골세포의 성상이 변함은 물론, 동적인 부하가 가해졌을 때 젊은이의 연골세포는 연골기질 합성을 촉진해 회복이 빠른 반면 노인의 연골세포는 이러한 자극에 덜 반응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폐경 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골관절염의 발생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릎관절염의 자가증상

무릎에 골관절염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거나 오래 걸으면 통증이 심한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 무릎이 떨릴 수 있으며, 바르게 섰을 때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펼 때 소리가 나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특히 심하며 걷고 난 후 생긴 통증이 2~3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차이

골관절염은 많이 사용한 특정 관절이 붓고 아프며, 부은 관절을 만지면 뼈가 튀어나온 것이 느껴집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관절이 동시에 붓고 열이 나며 부은 관절을 만지면 말랑말랑한 느낌이 듭니다. 손가락 관절염의 초기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몸통과 가까운 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아픈 반면, 골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끝마디를 침범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정 관절 붓고 통증 뼈 튀어나와
예방 위해 장시간 육체노동 삼가야

골관절염의 치료

골관절염 초기에는 따뜻한 찜질로 통증과 근육 강직을 감소시켜 주고, 진통 소염제를 사용해 통증을 가라앉힌 후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속에서 걷는 운동 등 다리 근육 강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중기에는 관절 내에 고인 물을 빼고 관절 영양제나 뼈 주사를 관절 내에 주사해 볼 수 있고, 반복적인 악화가 있다면 관절경 수술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약물, 물리치료와 관절경 수술이 효과가 없는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며, 인공관절 수술의 성공률은 약 95%에 달합니다. 약물요법으로는 단순진통제, 소염진통제, 글루코사민(중증 통증만 완화), 스테로이드 뼈 주사, 연골주사 등이 있습니다. 기타 비약물 요법으로는 체중 조절, 깔창, 지팡이, 테이핑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골관절염이 발생하지 않은 비만한 사람은 체중을 5kg 줄이면 무릎골관절염의 증상 발병에 대한 위험도가 5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예방

골관절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무리한 육체노동을 삼가야 물렁뼈에 손상을 입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있게 운동하는 것이고, 무릎 통증을 호전하는 데에는 적어도 6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자가관리

관절에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술과 담배 등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편안하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골감소에 의한 퇴행성 변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요로결석 등의 병력이 없다면 칼슘과 비타민D를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전을 위한 노력

골관절염은 관절을 이루는 연골, 뼈, 활막 등 구조적 변화가 선행된 후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변화된 구조를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한번 증상이 발생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약물치료 및 비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하게 되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특히 무릎 관절염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에 대해 상의를 하는 것이 예후를 고려할 때 가장 좋은 치료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박지혜
거인병원 내과과장



전법 일기

식탐을 넘어 수행으로 음식 앞에서 알아차림

찌든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돌보고자 오랜만에 경주 골굴사를 찾았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주 찾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곳은 언제나 따뜻한 어머니 품처럼 편안하게 자리하고 있다. 산과 바다를 품은 지형, 숲과 계곡이 둘러싼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앉아 있는 마애여래좌상은 도량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안는다.

이곳에서는 아이부터 어른, 수행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 특히 선무도 수행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도구다. 일정한 호흡과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고요함 속에서 땀과 함께 혼탁한 생각들이 씻겨나가는 듯하다. 나 역시 잠시나마 스님의 지도 아래 동작을 따라 하며 호흡을 가다듬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오고, 집중은 흐트러지며 머릿속엔 온통 음식 생각뿐이다. 이내 바람을 타고 오는 공양간의 맛있는 냄새에 정신이 쏠린다.

드디어 공양 시간. "스님답게 점잖고 알아차림 속에서 먹자"고 다짐하지만, 접시 위엔 어느새 맛있는 반찬들로 작은 산이 만들어진다. 한 번 담은 음식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음식을 담는다. 잠시 멈칫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지만, 이내 "한 번쯤은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이러한 경험은 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음식 앞에서 쉽게 끌리고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오늘날 음식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감정의 표출이자 취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까지 여겨진다. 맛과 향, 식감에서 비롯되는 감각적 쾌락은 잠시의 즐거움을 넘어 각자의 내면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처럼 감각적 욕구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정신적 혼란이나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식탐을 '탐욕'의 일환으로 본다. 식욕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지만, 그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삶은 괴로움을 낳는다. 초기불교에서는 식사에 앞서 음식을 바라보는 감각기관의 반응과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살피라고 가르친다. 이는 단순한 식사 예절을 넘어, 수행의 일환으로서 식사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절제와 중도의 자세로 음식을 대하고 음식에 담긴 여러 사람의 정성, 공덕을 깊이 통찰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먹는다면, 자연스럽게 집착과 탐욕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나는 오늘 다시 다짐해 본다. 식사를 단지 생존의 수단이 아닌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음식 앞에 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기를. 그 알아차림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삶이야말로 나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는 길이며, 음식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조금씩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모두가 절제 속에 감사하며 조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음식 한 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 세상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현도 스님
한국불교상담학회 특임이사



송마나의 시절인연

한 계단 한 계단, 부처님을 향하여

우리나라는 도시든 시골이든 산이 가까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반나절에도 다녀올 수 있다. 7월의 산속은 어둑하고 서늘하다. 짙푸른 잎이 우거져 터널을 이룬 숲길을 걸으면 빛은 조용히 스며든다. 산은 언제나 마음속의 앙금을 가라앉히고, 신생의 풋풋함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요즘 산봉우리 아래에는 어김없이 사다리가 놓여 있다. 수많은 등산객이 몰리면서 자연 훼손을 줄이기 위한 조처일 것이다. 이제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고는 산 정상에 이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산꼭대기 아슬아슬하게 걸린 사다리를 올려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난다. 수직으로 길게 뻗은 사다리의 끝이 허공에 걸려 있는 듯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바라보다가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만 돌아가고 싶어진다. 하지만 사다리만 오르면 정상에 이를 수 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사다리의 맨 아래 단에 첫발을 디딘다. 조심스레 두 번째 단으로 발을 옮긴다. 오직 다음 단만 바라본 채 한 걸음씩 오른다.

얼마큼 올랐을까. 살며시 뒤를 돌아본다. 발아래로 산 능선이 펼쳐지고 멀리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다.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듯하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쿵쾅거린다.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아찔하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이제 내려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단숨에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뛰어오를 수도 없다. 삶은 그렇게 정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종종 조급한 마음에 목표를 향해 성급히 달려가려다 넘어지고 쓰러져 낙심한다. 그러나 좌절과 시행착오는 한 걸음을 위한 준비일 수 있고, 우리 안의 성찰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시 몸의 균형을 잡고 한 걸음씩 사다리를 기어오른다. 떨리던 다리에 힘이 붙고, 흐느적거리던 팔에도 단단함이 생긴다. 마음을 다잡고 다음 계단을 향해 스스로를 밀어 올린다. 어느새 불안이 사라지고, 내가 사다리를 오르고 있다는 것조차 잊은 채 산꼭대기에 가까워진다.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흙덩어리가 아니다. 먼지를 털고 일어나 스스로를 빚어가야 하는 존재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유의 힘으로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마침내 정상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 계단을 오르면 한 계단의 내가 되고, 두 계단을 오르면 두 계단의 내가 된다. 사람은 올라가는 만큼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창조해 가는 존재다. 인간이 자신을 창조할 때 세상 또한 함께 창조된다.

인간이 마땅히 오를 곳은 저 높은 부처님이 머무는 자리다. 우리는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길은 단번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한 걸음씩 성실하게 정진하며 나아가야 한다. 날마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계율을 지키며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오르다 보면 마침내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환희심을 느끼게 된다. 그 순간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도봉산(道峰山) 정상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오르고 있다.

〈작가〉

기자칼럼

아이들 위한 불서부터 만들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은 36권으로, 이 중 종이책과 전자책이 34권을 차지했다.

종이책에서 주로 읽는 분야는 소설(동화)이 41.8%로 가장 많았고, 그림책, 과학·기술·컴퓨터, 취미·오락·여행·건강 순이었으나 종교 분야는 찾을 수 없었다. 전자책에서도 종교 분야는 상위 응답에 없었고, 오디오북에서만 철학·사상·종교 분야가 포함됐으나 이마저도 4.1%에 불과했다.

이는 미래 세대가 이미 불교에서 멀어진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문제는 '왜 안 읽느냐'가 아니라, '읽을 만한 책은 있느냐'이다. 신간만 해도, 최근 6개월간 발간된 국내 불교 관련 어린이·청소년 도서는 교보문고 판매 기준 10권이 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한국사 관련 전집을 제외하면, 단행본은 2권 남짓이다. 아이들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세대를 양성하자'는 교계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책 발간은 저조한 실정이다.

어린이·청소년 불교책 발간의 활성화를 위해 불교계가 취해야 할 해답은 학생들의 독서 장애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책을 읽은 학생의 경우,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고, '책 이외의 매체 이용',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다른 여가·취미 활동을 해서', '책 읽기가 재미없어서'가 뒤를 이었다.

결국, 불교계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책의 발간과 독서 습관을 돕는 포교법 개발, 여가·취미를 이끄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7월 9일 현재 교보문고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부터 20위까지 상위권을 모두 기독교 서적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교계는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불서 발간과 이를 장려할 지원 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왜 안 읽느냐고 탓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읽을 책을 먼저 만드는 일이다.



배희정 편집국 객원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 일타강사

BTN 불교TV에 다 있다!

모든 번뇌를 날려버릴 족집게 법문

한국학 | 문광스님 신 행 | 광우스님 계 율 | 법장스님 불교사 | 자현스님

문광스님 한국학 에세이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소중한·나·무한행복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법장스님의 Together 두계단 本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더하고 덜어내고

현불논단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올해 7월은 윤달이 있는 시기이다. 불교를 넘어 농경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윤달은 매우 중요하다. 달을 중심으로 절기를 확인하여 농사를 지었기에, 양력과 절기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윤법(置閏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윤달'이다. 윤달은 원래 윤월(閏月)으로 불렸으나, 한글 표기와 합쳐져 지금처럼 '윤달'이라 불리고 있다.

윤달은 동양 천문학의 정수이며, 우리나라 민간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불교에서는 윤달을 공덕 쌓는 시기로 여겨왔다. 그래서 윤달이 되면 예수재(豫修齋)를 비롯해 수륙재(水陸齋) 등의 특별 법회를 열어 기도를 통해 공덕을 쌓고자 했고, 지금까지도 그 의례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윤달의 '윤(閏)'이 지닌 '더하다, 보태다'의 의미를 살린 것으로, 일 년이라는 기간 중에 본래라면 존재할 수 없는 마치 13월과 같은 잉여의 한 달 동안 추가로 공덕을 쌓아 금생과 내생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다.

윤달 법회 중 가장 대표적인 '예수재'는 '생전예수재'라고도 불리는데, 이 명칭으로 인해 때때로 불교의 면죄부와 같이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재는 말 그대로 생전(生前)에 미리[豫] 수행과 공덕을 닦는[修] 법회[齋]이다. 이 법회를 통해 쌓은 공덕이 사후 윤회의 생이 정해질 때 사용되어 보다 나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의미였던 것이, 오직 극락왕생을 바라는 법회와 같이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재는 내생만이 아니라, 윤달에 수행을 더욱 쌓아 다음 달부터 다시 이어지는 일상에서 보다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다.

윤달 예수재, 수륙재 등
수행 통한 변화 願 담겨
욕심 덜어내는 삶 살기를

그리고 수륙재는 수륙대재라고도 하여, 물과 땅에 머물고 있는 고혼(孤魂)과 아귀에게 공양을 주는 법회를 열어 그들을 천도하고 그 공덕이 회향되어 자신도 공덕을 쌓고자 한 것이다. 앞의 예수재가 자신을 위해 공덕을 쌓고자 한 것이라면, 수륙재는 다른 중생에게 공양을 주어 그 공덕을 회향으로 받고자 한 것이다. 두 법회 모두 공덕을 쌓는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그 기도의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윤달에 수계식도 열리는데, 이는 불제자가 되어 불교를 수행하고자 하는 발원도 있지만, 사후에 불교적 구제나 극락왕생 등을 바라는 염원에서 수계를 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윤달에는 다양한 기도와 수행, 법회가 열리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금생의 자신이 많은 업을 짓고 여러 번뇌를 쌓았다는 것을 참회하고 지금보다 나은 내일과 내생에 대한 발원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윤달의 수행법을 이제는 보다 불교적으로 이끌어 갈 때이다. 불과 얼마 전에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 수많은 피해를 주었고, 이상기후로 지금 이 순간도 무더위와 극한호우를 걱정하며 7월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에 의한 재해이다. 공덕을 쌓아 지금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윤달의 기도를, '지금보다'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나와 이웃, 인연된 모든 것들이 같이 행복하고 함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살펴봐야 한다.

공덕을 더해 나은 삶을 바라기도 하지만, 욕심과 잘못을 덜어내어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덜 욕심내고 덜 편리하고 덜 사용하면 더 얻게 될 것이다. 일 년에 마치 선물과도 같이 더해진 이번 윤달에, 자신의 인연과 주변을 더 살펴보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한다면, 다름 아닌 우리가 더욱 행복해지고 나은 내일의 오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AI시대, '화두'로 질문 차원 높여라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인공지능, 특히 챗지피티(ChatGPT)나 제미나이(Gemini) 같은 거대 언어 모델(LLM)의 발전은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방대한 정보를 즉각 제공하는 LLM의 강력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효율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질문'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 창의성을 발휘할까? 나는 여기서 간화선의 화두에 내재한 질문 방식에 주목하고 싶다.

화두는 논리적 사고나 이성적 추론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역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질문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같은 질문은 우리가 익숙한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깊은 의심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열게 한다. 화두 참구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답을 통해 세계관과 자아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LLM은 인간처럼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는 아니다. 하지만 화두의 본질적인 질문 방식을 LLM에게 적용하면, LLM이 학습된 패턴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조합하고 추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는 LLM을 우리가 원하는 사고의 확장이나 관점의 조율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챗지피티 등 LLM, 빠르게 발전
좋은 답변 위한 좋은 질문 필수
화두식 질문법으로 창의성 향상

LLM에게 던지는 화두식 질문은 어때야 할까? 첫째, 고정관념을 깨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LLM이 가장 '그럴듯한' 답을 내놓기보다, 익숙한 사고방식의 한계를 넘어선 답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다각적인 관점과 심층적인 분석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LLM에게도 특정 주제에 대해 극단적인 관점, 상반되는 관점, 또는 비주류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만약 ~라면"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본질적인 질문으로의 회귀를 유도해야 한다. LLM이 개념의 본질을 파고들어, 그 개념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심오한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생성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화두는 정해진 답이 없기에, 수행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과 이해 방식을 모색한다. LLM에게도 제한된 정보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서로 무관해 보이는 개념들을 연결하여 혁신적인 발상을 도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화두의 질문법은 LLM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지적 탐구를 돕고 새로운 통찰을 끌어내는 진정한 지적 협력자로 활용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이제 인간은 화두식으로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LLM의 답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

社 說

조계종연구소, 불교와 사회 잇는 가교 되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으로 올해 4월 1일 공식 출범한 조계종연구소가 7월 9일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연구소가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실천 전략을 생산하는 '불교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은 연구소가 내적으로는 공공성과 장기 전략 수립에 기초한 정책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사회적으로는 불교의 지혜로 동시대의 핵심 과제를 통찰하고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의 기본적 역할은 출가·포교·교육·사찰 운영 등 종단 미래 전략의 연구·개발이다. 그러나 조계종이 총무원 산하에 연구소를 확대·설치한 것은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소에는 종단 정책을 넘어, 전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 방식을 고민하는 책임도 함께 부여되어 있다.

연구소가 출가 제도 개선, 신행문화 혁신, 사회참여 확대, 국제교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연구 성과물이 종단의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고, 불교계와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조계종연구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불교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종교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

자생적 불교문화 생태계 구축 필요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수록곡의 인기도 좋아 주인공인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와 대결 구도를 보이는 '사자 보이즈' 모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사자 보이즈'는 저승사자를 모티프로 한 캐릭터지만, 이 원형은 불교의 '명부사자(冥府使者)'다. 김용덕 한국민화센터 이사의 말을 빌리자면 명부사자는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고 행정 서류 업무까지 도맡는 "지옥의 공무원 같은 존재"다. 살짝 귀엽기까지 한 명부사자가 검은 도포와 갓, 창백한 피부의 모습이 된 건 현대에 와서다.

이처럼 불교는 문화콘텐츠의 원형이자 보고다. 문제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에 있다. 최근 창작 찬불동요·찬불가를 제작·보급해온 '좋은벗 풍경소리'가 회향 소식을 알렸다. 여러 부침에도 어린이불교학교 등에서 사용될 찬불가를 만들기 위해 30년 동안 매년 2차례 풍경소리 음반을 발매해 왔다. 쉼없이 달려 온 풍경소리는 지난 6월, 60집 음반을 끝으로 멈춰섰다.

외부에서는 불교문화를 원형으로 한 굿즈와 콘텐츠들이 쏟아지지만, 불교계 내부는 유일의 찬불가 보급 단체가 문을 닫는 이 현실은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보기만 좋은 꽃일 뿐 정작 우리가 거둘 수 없는 열매가 없다면 불교계 문화콘텐츠는 속빈 강정이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불교문화 생태계'를 구축해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다. '화이부실(華而不實)'의 우가 지속되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대승종은 1988년 5월 28일, 도암선사께서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 각행원만(覺行圓滿)을 근본교리로 창종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본 종단은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대승보살행을 실천합니다.
종조는 태고 보우국사이며, 소의경전은 『법화경』 · 『금강경』 · 『아미타경』 · 『열반경』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 경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전국에 350여 사찰과 750여 명의 승려 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수행과 중생 교화에 뜻을 둔 신심 깊은 출가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스님

불기 2569년(2025) 7월 16일
대한불교대승종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7월 1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7월 1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7월 1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마치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 땅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다.

이제, 당신의 발에도 진정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자연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특징 1 **뛰어난 통기성의 메쉬 소재** – 발이 숨 쉬는 듯한 쾌적함

특징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한 착화감

특징 3 **자연 통풍 구조** –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설계

특징 4 **세련된 디자인** – 그레이 색상과 다크 그레이 솔의 조화

특별혜택

지금 구매하시면,

정가 80,000원 ⇒ **특별 할인가 65,000원**

어싱 효과를 더욱 높여줄 '어싱 양말'을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사이즈 : 225mm~280mm, 색상 : 미들 그레이)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당신의 발을 해방하세요.

'메쉬 어싱 수행화'는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메쉬 소재는 뛰어난 통기성으로 언제나 쾌적함을 유지해주며,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땅과 나를 연결하는 '어싱(Earthing)' 기술로, 걷는 내내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1 벨크로 타입으로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 맨발로 걷는 느낌을 최대한 주는 3mm의 탄력있는 밑창으로 발 건강을 향상 시킵니다.
3 어싱 신발에는 가죽 인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발 감각에 익숙치 않은 분을 위한 것이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사계절용(생활방수)

※ 사은품 : 어싱 양말

지금 바로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검색창에 '메쉬 어싱 수행화'를 검색하세요!


베이지▶


블랙▶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어싱 샤모아



특판가 80,000원

사계절용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